소년단

1957.6

우리들의 사진첩에서

실험 실습도 체육도
즐겁고

해마다
여름이면
시작되는 야영
도 즐겁다, 춤추고
노래하자, 우리의 행
복을!

표지 1면: 수영을 하고 나서………김 창규 촬영

소년단 1957년 6호 내용

(투)(쟁)(기)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문)(예)

◇ 남조선 이야기 ◇

△10월혁명 40주년을 앞두고△

—우리들의 그림 페—지—

소년단원 정찰병

◇최 화 규◇

1950년 11월—적들에게 강점된 복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투를 앞둔 날 밤이였다.

밀림의 밤은 고요히 깊어만 갔다. 산림속에서 설레던 락엽 소리도, 온 종일 처량하게 우짖어 대던 새들도 모두 잠들었다.

빨찌산 아저씨들도 모닥불을 둘러 싸고 잠들었다.

그러나 열다섯 살 난 창묵이만은 늙은 소나무 아래서 아직 잠들지 못했다. 빨찌산 부대장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는 생각하는 것이였다.

《이번 정찰은 힘든 일이였지, 욱실거리는 미국놈들이 무섭지 않았니?》.

《아닙니다. 그때 나에게 총이 있었다면 놈들을 쏘아 죽였을겝니다》.

《그래야지!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싸울 수 없지! 오늘 네가 얻어 온 새로운 정보는 큰 도움이 되였다. 이젠 돌아가 푹 쉬여라. 복계 해방 전투엔 참가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창묵이는 발'길이 돌아 서지 않았다.

《부대장 아저씨! 나도 복계 해방 전투에 참가하겠습니다》.

《정찰 갔다 온 것만도 네겐 장한 일이다. 푹 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를 타일러 보냈던 것이다.

지금 누워서 깊은 생각에 잠긴 그는 전투에 참가 못 하는 것이 애탔다.

《아니다, 몰래라도 따라 가야지!》.

굳은 결심을 다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이 새지나 않나 하고 하늘을 바라 보았다. 꺼져 가는 모닥불에 나무 껍질 몇개를 넣었다. 모닥불은 힘을 얻어 탁탁 튕기면서 다시 살아 났다.

《애! 넌 왜 자지 않니!》.

옆에 누워 있던 명기 아저씨의 말이다.

《아저씨! 부대장 아저씬 날 왜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몰래라도 따라 갈래요》.

아직 애티 있는 말 소리였으나 힘있게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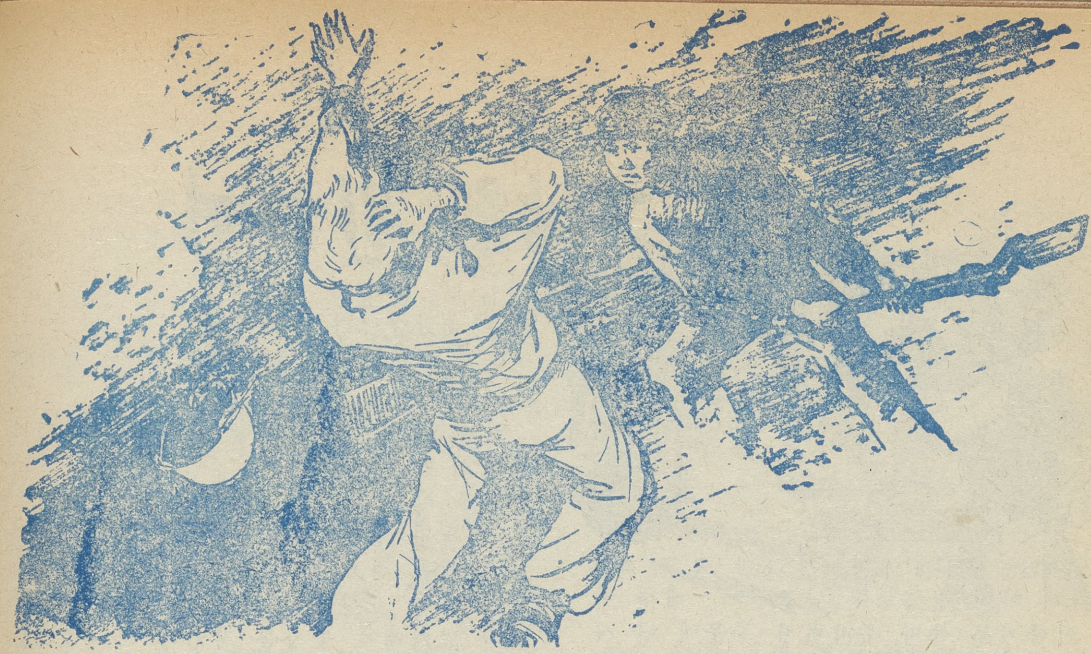
《복계에 갔다 돌아 와서 또 어떻게 가겠다고 그러니?》.

《아저씨도 내 마음을 몰라 주는군요. 복계가 얼마나 멀다고 그래요! 나는 칠하철에서 있은 일을 잊지 않아요!》.

명기 아저씨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였다.

그것은 중삼리에서 평강 빨찌산 부대를 조직하던 때 열렬하게 토론하던 창묵이의 모습이 선히 떠 올랐기 때문이였다.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아식 보총은 적과 영웅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인민 군대 아저씨로부터 물려 받은 것입니다. 그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나는 로동당원이다. 당이 부르는 길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힘껏 싸웠다.

그러나 인민의 원한을 갚지 못하고

죽는 것 같다. 자! 받아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던 나의 총이다. 내 뜻을 이어 다오—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찌 가만이 있겠습니까! 나도 빨찌산에 들여 주시요》.

그때 명기 아저씨는 나 어린 그가 전사한 아저씨의 뜻을 이어 그처럼 미국놈을 증오하며 자기도 끝까지 싸우겠다던 불타는 애국심, 원쑤를 기어코 갚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똑똑히 보았다. 명기 아저씨는 말 없이 입술만 깨물었다.

멀리서 출전 준비를 알리는 가느다란 호각 소리가 고요한 골짜기로 길게 울려 왔다. 밀림은 갑자기 웅성거렸다.

출전 준비를 갖춘 빨찌산 아저씨들은 대렬을 지어 아지트를 떠났다.

빨찌산 부대장과 작전 계획을 의논하려 인민 군대에서 찾아온 문화 부사단장은 빨찌산 아저씨들이 지나 가는 것을 한사람 한사람 보고 있었다.

맨 뒤에 서 있던 창묵이도 부대장 앞을 지나게 되였다.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큰 사람처럼 보이려고 발 뒤꿈치를 올리면서 그는 걸었다. 그의 어깨에 메여진 보총의 총탁은 발 뒤꿈치에 닿아서 덜렁거렸다. 이것을 본 부대장은 빙긋이 웃음을 띄우며 창묵이를 불러 세웠다.

《나에게 총을 주시요. 바꾸어 줄테니까!》.

《부대장 아저씨! 이 총으로 원쑤를 갚게 해 주십시요》창묵이는 애원하듯 말했다.

빨찌산 대원들의 뒤를 따라 가는 창묵이의 씩씩한 모습을 바라보며 부대장은 만족해 하였다.

달'빛은 숲 속으로 걸어 가는 빨찌산들의 앞길을 밝혔다. 그들은 큰 도로를 피하여 말없이 오래'동안 걸었다.

복계역 부근에 닿자 빨찌산 부대는 전투 준비를 갖추고 맡은 위치로 헤여졌다.

전 같으면 새벽 닭 울음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 올 것이였으나 미국놈들이 다 잡아 먹었는지 사방은 조용하였다. 추위는 견디기 어려웠다. 논'두렁에 엎디여 전투 명령을 기다리는 창묵이는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낮에 낯익힌 적들의 소굴이 뚜렷이 나타나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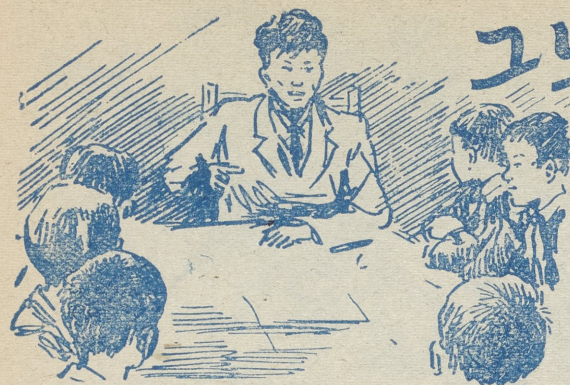
《저 것이 기관고이지, 그 속에 미국놈들이 처박혀 있을테지, 군수품 실은 화차는 아직도 남아 있구나! 이놈들 한바탕 겪어 보라!》.

이렇게 그는 마음 속으로 결심을 다지였다.

참모부로부터 왼 팔에 흰 수건을 동이라는 명령이 전해 왔다. 그리고 빨찌산 한명이 적진 속으로 기여 갔다. 보초병을 없애 버리고 좀더 앞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누구야!》하는 소리와 함께 《따—쿵》하고 총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다.

보초병 있는 곳으로 접근하던 빨찌산 아저씨가 발각된 것이였다.

참모부에서는 빨리 작전 계획을 달리하여 돌격하라는 신호탄을 올렸다. 조급하게 기다리던 빨찌산과 인민 군대 아저씨

그날을 위하여

황해남도 신천 제1 중학교 대 7분단 윤 형 침

어제 아침 선생님은 남조선에 대한 시사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서 신문에 난 사진도 보여 주셨습니다.

사진은 남조선 어느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 앞에서 통곡하고 있고 그 뒤에 사람을 죽인 승냥이 같은 미국놈이 서 있는 광경이였습니다.

미국놈들은 이 시각에도 죄없는 남조선 인민들을 막 죽이고 있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죽여 가며 이야기를 듣던 나의 눈앞엔 미국놈들에게 학살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얼굴은 불'덩이 같이 달아 올랐습니다.

미국놈들이 우리 고향 신천 땅에 기여들려고 할 때입니다.

하루 아침 아버지 (정미 공장 기술자)는 심각한 얼굴로 《놈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이 고장을 피하우. 난 나중엔 죽는한이 있더래도 공장을 지키다 봐야겠소》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남아 있겠다 하시고 나와 누나는 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조를 때 이렇게 다정히 타이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아버지와 헤여져서 촌으로 떠났습니다.

그후 아버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참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놈들은 신천 땅에 들어서자마자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미쳐 날뛰였습니다.

놈들은 로동당원인 나의 큰 아버지를 끌어다 죽이고 큰 어머니마저 죽음의 마당으로 끌어 갔습니다.

큰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같이 끌려 가던 사촌 동생 성아는 그만 겁에 질려 악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놈들은 시끄럽다고 어린 성아의 눈알에 총뿌리를 대고 쏘아 죽였습니다.

어린 것을 잃고 가슴을 쥐여 뜯으며 통곡하는 큰 어머니를 놈들은 창고 속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이 쉬도록 아우성치며 잃어 버린 엄마를 찾는 아이들도 끌어다 숨막히는 창고 속에 가두었습니다. 며칠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겼습니다.

며칠이 지나 놈들은 이 창고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 속에서 헤여 나오려고 손끝이 닳아 피가 흐르도록 담벽을 허비며 엄마를 부르는 어린 것들을 보고 놈들은 좋다구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지방 산마루에 자리 잡은 삼천여명에 달하는 애국자 합동묘와 102명의 어린이 무덤, 400명의 어머니 무덤들은 놈들이 애국적 인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였는가를 잘 말해 줍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런 광경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 놈을 죽이고 내가 죽어도 네놈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테다》하고 몽둥이를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놈들은 대항하는 나의 아버지를 잡아 화약 창고에 가두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불타는 속에서 여러 아버지들과 함께 조선 로동당 만세를 웨쳤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이 소식을 알게 된 나는 막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남아 있었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미국놈을 물어 뜯기라도 할 걸…내가 왜 철없이 떠났던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그때 나는 불과 여덟살 밖에 안되였으니 아무 것도 몰랐지만 지금만 같아도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한 놈들이 우리 고향에 와서 한 것과 같이 남조선 형제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끓어 올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속히 미국놈들을 물러가게 하고 남조선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을 위해 모든 힘을 다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비록 어린 몸입니다. 그러나 앞날의 공화국의 훌륭한 일'군으로 되기 위해 소년단 사업과 학습에 모든 힘을 다 하며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용감히 싸우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잇는 길이며 원쑤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이 만세를 부르며 돌격하였다.

갑자기 사면으로 공격하는 빨찌산들의 만세 소리, 수류탄 터지는 소리, 기관총 소리—

적들은 반항도 못 하고 삽시간에 무리 주검이 되고 말았다.

창묵이는 옛 기관고 자리로 달려 갔다. 그러나 인민 군대 아저씨들이 먼저 달려와 《뚜루룩—뚜루룩—》따발총으로 사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자다 도망치는 미국놈 하나가 창묵이 앞으로 오는 것이였다. 총 쏠 사이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재빨리 총을 거꾸로 쥐고 머리를 내리쳤다. 미국놈은 《쿵!》하고 꺼꾸러졌다. 창묵이는 자기에게 언제부터 그런 힘이 있었는가 싶었다. 그놈의 가슴팍에다 총을 한 방 놓은 다음 군용 화물차에다 불을 질렀다.

훤히 밝아 오는 새벽에야 요란스럽게 울리던 총소리는 뜸해지고 싸움은 끝났다.

창묵이는 두리에 너저분하게 나자빠진 미국놈들의 시체들과 화물차에서 연신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다.

《오늘이야 원한을 갚았구나! 적과 싸우러 떠난 아버지, 그리고 인민 군대에 있는 금손 누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되였구나!》.

창묵이는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흥분된 창묵이의 곁으로 부대장 아저씨는 다가 서면서 《창묵아! 우리들의 싸움은 이제부터란다! 미국놈들이 조국 땅에서 물러 갈 때까지 힘껏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대장 아저씨의 말을 창묵이는 언제나 잊지 않았다.

때문에 그 후 세포 해방 전투에서도 그는 정찰병으로서 훌륭히 싸운 것이다.

창묵이는 그때 세포 제 1중 학교 2학년생이였으며 소년단원이였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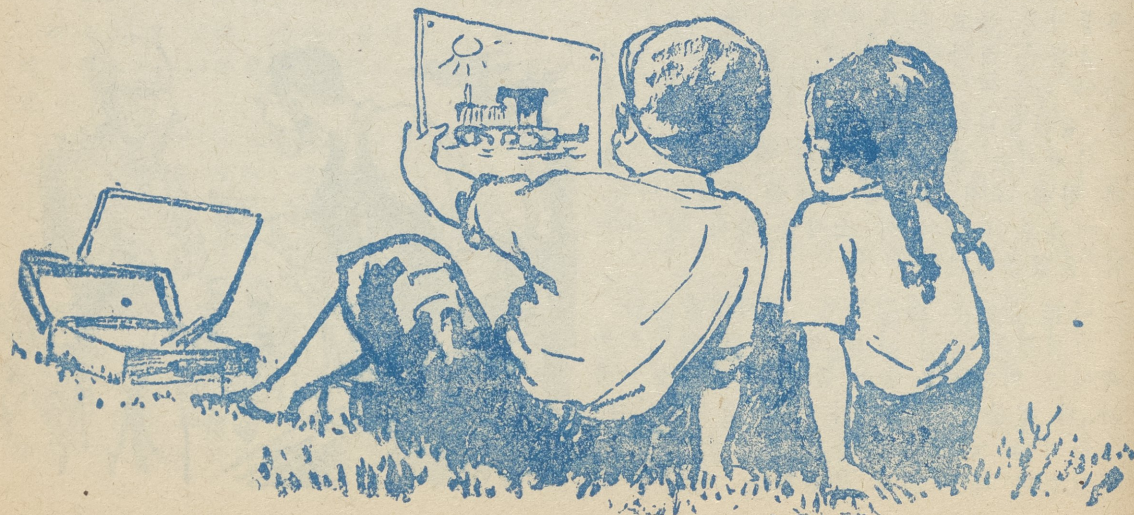
내'가에서

김 학 연

맑고 맑은 시내가 흐르네,
파란 내'물엔 구름도 비치였네.
—얘들아! 얼마나 곱니
—아이 거울처럼 맑기두 해라…

아이들은 나란히 내'가에 앉았네,
파란 내'물엔 아이들도 어리였네.
—이봐! 우리 그림들 그릴가?
—응 게 좋겠어!

◇

어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내'가에 늘어진 버드나무랑
그 넘어 무연한 조합벌을 그리네.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부르며
달리는 뜨락또르 크게도 그리네………
이렇게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네.
푸른 산 기슭의 붉은 벽 구락부며
그 아래 줄지은 과수원이며…….

그림이야 서툴 수도 숭할 수도 있단다.
그러나 장하게도 즐거운 한 때를
너희들은 꾸밈없이 그 속에 담았구나.
후'날엔 자랑찬 혁신자로 될
후'날엔 이름 높은 기사로도 될
후'날엔 놀라운 학자로도 될
너희들의 희망에 축하를 드린다.
너희들의 장래에 축하를 드린다.

◇

시원한 들바람 내'가에 불어 오네,
불어 와선 가벼이 가슴에 안기네.
—얘, 넌 그림 이름을 뭐라구 했니?
—《아름다운 내 고향》으루 했어.

시원한 들바람 내'가에 불어 오네.
불어 와선 가벼이 넥타일 날려 주네
—그래 네 그림은 이름이 뭐지?
—《소년단원의 희망》 이야!

슬기로운 전적지 고향의 력사를 연구하며

량강도 보천 제1 중학교 대 위원장 백 관 호

우리 고향 보천보는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투쟁의 전적지로서 이름 높은 고장의 하나입니다.

원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이 고장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는 오래 전부터 슬기로운 전적지 고향의 력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보천보 전투를 중심으로 한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투쟁을 연구하면서 고향 보천보의 당시 환경과 위치, 인민들의 생활 형편들을 알아 내며 보천보 전투의 내용과 과정들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지난 해 2월 초에 대 열성자 모임을 가지고 김 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 연구와 함께 앞으로 고향 보천보의 과거와 현재 력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논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고향 보천보가 개척되던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발전 력사를 더욱 자세히 연구하게 되였고 보천보 전투와 관련 있는 지대의 답사, 전설, 민화 등의 수집을 통하여 《고향의 력사 연구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지난 해 2월 말이였습니다. 최 학암 동무를 중심으로 한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대 위원회 계획 대로 고향 보천보의 과거 력사를 알기 위하여 보천보에서 늙으신 김 영 선생님을 모시고 보천보가 개척되던 당시와 그후 실정들을 자세히 듣게 되였습니다.

리조 말엽까지도 보천보는 사람이라군 살지 않는 대 밀림 지대였답니다. 다만 이 곳에서 벌목군들이 들어와 화전을 일쿠고는 감자를 심었다가 캐 가군 했을 뿐이랍니다.

그러나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놈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농민들이 하나, 둘 여기 밀림 속을 일쿠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도끼다》라는 일본놈이 이 곳 백두 밀림의 나무를 마구 찍어 가기 위하여 벌목 로동자들을 끌고 들어 오게 되였답니다.

이리하여 보천보에는 벌목 로동자들과 화전민 부락이 생겨 나기 시작한 것이였습니다.

그 후 일제는 개마 고원 일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 배불려 보려고 보천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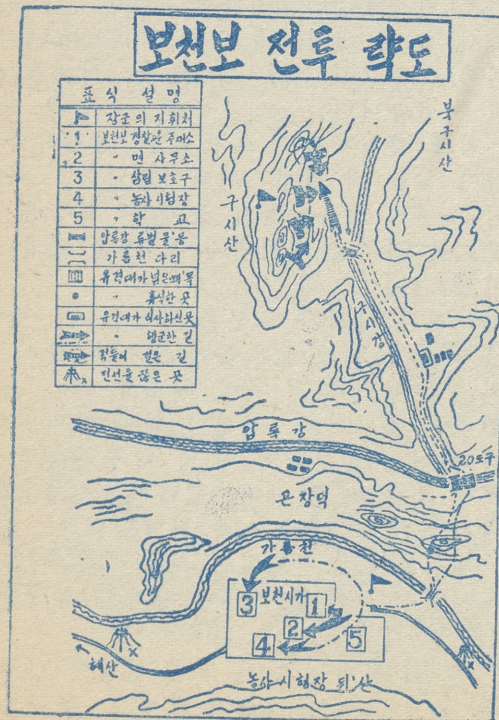
총독부 직속 농사 시험장을 설치하게 되였답니다. 그런데 농사 시험장 책임자이던 왜놈은 험한 령을 넘나들어야 하는 시험장까지 사인교(사람을 태우는 가마)를 타고 이 곳 로동자들에게 메워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개척된 보천보에 차차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자 왜놈들은 이 고장 인민들을 마음 대로 부려 먹으며 탄압하기 위하여 왜놈의 경찰 주재소를 설치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열마 후 우리는 군당 위원장 선생을 찾아가 보천보 전투 당시의 환경과 전투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습니다.

1937년에 들어서면서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왜놈들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놈들을 족쳐 부시며 조국에로의 진군을 위한 작전을 준비하셨답니다.

드디여 1937년 5월 20일경 조선 인민 혁명군 제4사는 최 현 장군의 지휘 하에 함북 무산 지구에 진출하여 무산 영림서로부터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 혁명군 부대의 진격에 놀랜 왜놈들은 소위 라남 19사단 소속 혜산, 신갈파

주둔 국경 수비대들과 위만군, 경찰대 할 것 없이 총동원하여 혁명군들에 대한 포위 작전을 시도하였답니다.

이때 무송으로부터 적들을 족쳐 부시며 장백현 지구에 진출하시였던 김 일성 원수께서는 적들의 분산 상태를 포착하시고 친히 인민 혁명군의 일 부대를 거느리고 보천보에 진군하셨답니다.

인민 혁명군의 보천보에로의 진군은 일제의 국경 수비 거점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는 동시에 인민 혁명군 제4사에 대한 적들의 포위선의 후방을 타격하는 것으로 되였으며 조선 인민들에게 반일 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게 하고 조국 해방과 승리의 신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동북 길가림에서 떠난 혁명군 부대들이 구시'골을 지나 압록강에 이르고 거기서 떼'목부 김 치근 로인의 떼'목으로 압록강을 건느셨다는 이야기, 조국 땅에 들어 서면서부터는 줄곧 달려 6월 4일 새벽 곤장덕에 이르게 되였다는 이야기며 이 곤장덕에서 적정을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하루 낮을 묵으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밤 11시에 일제히 왜놈의 주재소와 영림서, 면사무소 등 왜놈의 기관들을 습격하던 가지가지의 통쾌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갑산 공작 위원회 아지트 답사

지난 해 3월 28일 배 영일 동무를 중심으로 한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갑산 공작 위원회 아지트(비밀 집합 장소)에 대한 현지 답사를 떠났습니다.

이 답사에서는 주로 갑산 공작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김 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대와의 련계에 대한 자료들을 얻어 오며 그 지방의 략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자료의 수집과 기록은 배 영일, 방 사운 동무들이 맡았고 략도를 그려 내는 일은 림 길수, 최 학암 동무들이 맡기로 의논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밤 늦게야 목적지 삼포리에 도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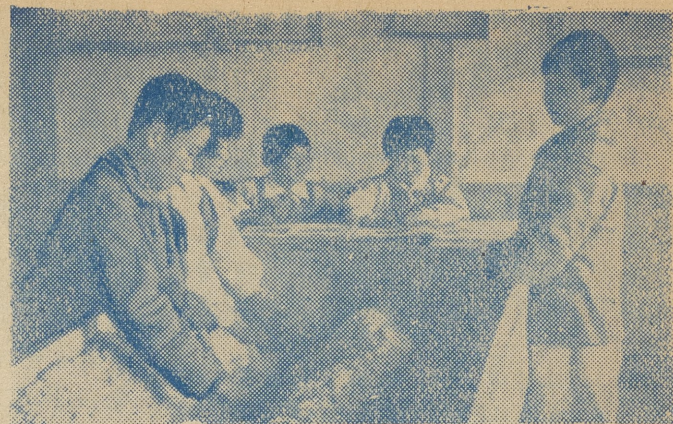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 우리는 그 곳 협동 조합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아지트가 있었던 현지를 답사하게 되였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빼곡 들어 찬 오솔'길을 더듬어 우리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산 둔덕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안내해 주시던 할아버지는 커다란 나무 둥거리 밑 바위를 가리키며 바로 그 밑에 아지트가 있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싱싱 자라고 있는 다섯 그루의 푸른 분비 나무가 옛 사연을 이야기하는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할아버지로부터 갑산 공작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였습니다.

1935년 3월에 조직된 갑산 공작 위원회(1937년 1월 조선 민족 해방 동맹으로 됨)는 김 일성 원수가 지도하신 옳바른 투쟁의 길을 따라 국내에서 왜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나섰다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에는 박 달 선생님을 비롯한 국내의 진정한 혁명 투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놈들의 눈을 피해 가며 움'속이나 혹은 뒤'방에서 야학을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반일 사상을 선전하였고 날이 감에 따라 여러 지방에서 청소년들을 반일 투쟁에로 일떠 나서게 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후 갑산 공작 위원회는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조직된 조국 광복회의 투쟁 로선을 받들고 국내에서 왜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세차게 진행하면서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부대를 도와 군수 물자와 왜놈의 군사 비밀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일들을 진행하여 왔다는 것이였습니다. 바로 보천보 전투를 앞두고 혜산 지역과 보천보 일대의 지형 략도와 지방 실정도 이렇게 하여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부대에 제공된 것이랍니다. 우리는 계속 아지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 박 달 선생을 일제 경찰이 체포하였다는 곳까지 올라가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수령의 발자취를 따라

갑산 공작 위원회 아지트 답사에서 돌아 온 우리는 4월 3일 또 다시 구시'골에로의 행군을 떠났습니다.

빨찌산들이 걸어 오신 오솔 길을 따라 우리는 보천보 앞산 곤장덕에로 올랐습니다. 곤장덕 고개 마루에 올라 서니 동쪽으로 멀리 포태산과 장군봉이 바라 보이고 북으로는 깎아 세운 듯한 절벽 밑으로 압록강이 굽이쳐 흐르는 것이였습니다. 강 건너 편에는 장백산 봉우리들이 높이 솟아 있는데 멀리 이마를 맞대인 듯한 간산봉 골짜기를 따라 구시'골이 아득히 내다 보이였습니다.

우리는 행군을 계속하여 열마 후 김 치근 할아버지네 집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김 치근 할아버지를 모시고 1937년 6월 3일 저녁 김 일성 원수께서 압록강을 건느시던 가지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깊고 넓은 압록강을 건는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었답니다. 그러나 빨찌산들은 6월 3일 그 곳에서 젊은 떼'목부들과 함께 나무를 베여다 길이 200메트르에 달하는 떼'목을 만들어 미리 예정한 장소에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떼'목은 누가 보든지 휴식을 위하여 머물어 있는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위가 어두워지자 빨찌산들은 떼'목을 대안에 건너 놓고 멋들어진 다리를 만들고 은밀히 강을 건느셨답니다.

이리하여 조국 땅에 진군하신 빨찌산들은 푸른 하늘 아래 산 좋고 물 맑은 조국—이 아름다운 고장을 짓밟고 있는 강도 놈들을 한시 바삐 죽쳐 부시려고 더욱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군해 가셨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날 우리는 또 빨찌산들이 보천보에 승리의 홰'불을 올리고 돌아 오실 때 빨찌산들에게 식사를 지어 드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걸려 있는 가마를 가리키며 《저 가마가 그때 밥을 지은 가마란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한창 밥을 잡수시는데 밖에서 호각 소리가 났단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같이 술을 놓고 눈 깜박할 사이에 모두 모여 서드구나. 왜 밥을 채 안 잡수시는가 했는데 지내 보니까 그 호각 소리는 뒤쫓아 오는 왜놈 군경들을 몰살하기 위해 떠나는 신호였더라》고 하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빨찌산들이 뒤쫓아 온 왜놈 군경들을 몰살시키던 구시'골의 모진 싸움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행군에서 돌아 온 우리는 그 곳에서 보고 들은 자료와 이야기들을 전체 동무들에게 전달하고 물리 크루쇼크원들의 도움을 받아 빨찌산들이 보천보에로의 진군 로정을 전기 장치로 나타내인 훌륭한 파노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향토 연구실에는 고향의 력사 연구에 대한 자료들이 늘어 가게 되였습니다.

＊　＊

그 후 향토 연구 크루쇼크에서는 지난 12월 20일 가산리의 압록강 농업 협동 조합을 방문하고 해방후 이 마을의 발전 면모와 특히 지난 해부터는 산간 마을 이 고장에서도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발을 논으로 풀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 가지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향 보천보의 과거와 현재 력사를 알게 된 우리는 이 기간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향의 력사 연구록》을 만들게 되였습니다.

이 연구록은 지금 우리의 향토 연구실에 비치되여 많은 동무들에게 애독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천보 전투 20주년은 기념하는 우리의 전람회에도 이 연구록은 각 분단들에서 출품된 많은 작품들과 함께 전시될 것이며 이 날 친선 야회와 체육 경기에 참가하는 도내 각 학교 소년단 대표들에게 우리 고향 보천보의 슬기로운 력사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1957, 5, 10)

《영예의 등록》 표창에 빛나는 모범 소년단원

실험과 관찰에 열중

유 순애 동무

유 순애 동무는 함북 길주 인민 학교 대 대 위원입니다.

그는 항상 배운 지식을 넓고 깊게 다지기 위하여 남달리 실험 실습과 자연 관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에서 《물의 려과》를 배운 그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병원을 찾아가 물의 려과 실험을 직접 진행하였고 증류수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 병원에서 얻어 온 깔따기와 시험관을 가지고 그는 증류기와 려과기를 만들어 분단 동무들의 학습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의 《꼬마 기상대》를 관리하면서 계절에 따라 변동되는 기온과 바람 방향의 변동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전체 동무들에게 그날그날의 일기 예보도 제때에 알려 주고 있습니다.

순애 동무는 5년간 내내 최우등의 영예를 지녀 오고 있습니다.

홍 구

순득이는 요사이 며칠째 도야지밥을 가지러 가기가 퍽 싫었다.

도야지 밥통을 지고 그 방직 공장 앞에만 오면 온 몸이 떨리고 분해서 지계 작대기로 미운 놈들을 닥치는 대로 막 때리고 싶었다. 그러나 순득이는 참았다. 참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 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순득이는 달래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방직 회사에는 많은 직공과 이 회사 사이에 담판이 일어났다. 그 담판에서는 물론 직공들의 말이 옳았다. 그러나 이 회사 주인들은 그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직공들은 우리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모두들 약속을 하고 일들을 안하게 되였다. 물론 여러 직공들과 약속할 때에는 어린 직공들도 그렇게 하겠소 하고 굳게 언약들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 직공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이 회사의 주인과 자기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왜들 일들을 안 한다는 것도 똑똑히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단단하게 약속한 그 이튿날부터 이상하게도 어린 직공들은 또 다시 그렇게 굳은 약속을 깨뜨리고 회사로 왔던 것이다.

그 속에는 순득이의 누이동생 남순이도 끼여 있었다. 그날부터 어린 직공들은 회사에서 집으로 보내지 않고 밥을 먹여 가면서 강제로 일들을 시키였었다.

물론 그 어린 직공들을 오게 한 데는 여러 가지 교묘한 일을 다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묘한 짓에 어느 때나 그렇게 속아 넘어 가지들은 않을 것이다.

순득이는 이것이 분하였다. 지금 공장에서 집에 돌아 오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보담 놈들의 그 교묘한 꾀에 넘어 간 것이 분하였다.

＊　＊

순득이는 마지막으로 도야지밥을 한 지게 지고 와서 쉬—하고 한숨을 한 번 길게 쉬였다.

순득이는 제집 도야지밥 같으면 져 오지를 않았을 것이다. 아니 져 오지를 못할 것이다. 어린 직공들이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할 수 없이 하면서도 분하고 설어서 갖다 주는 밥을 먹지 않고 송두리 채 그대로 도야지 밥통에 내여 버린 그 밥을 어떻게 가져 오겠느냐?

그러나 순득이는 할 수 없었다.

만일 이 노릇을 아니 한다면 그의 늙으신 어머니는 굶어 죽게 된다.

《얼른 나놔 주고 쉬자》 순득이는 아까 못 준 도야지 우리의 밥통에다 도야지밥을 쏟았다. 통에 붙은 밥을 모조리 쏟으려고 통 속에다 손을 넣었다.

통 밑 바닥에서 무엇인지 자꾸 손에 걸리고 밥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들었나 하고 통 밑 바닥에서 걸리는 것을 집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조그만 담배 상자 종이였다.

《경칠 놈의 것》하고 순득이는 예사로 내여 던져 버리고 나서 그 밥을 모두 떨어서 밥통에다 쏟아 주었다.

《에구 어깨야》하고 순득이는 어깨를 탁탁 치면서 그 대로 땅 바닥에 주저 앉았다. 순득이는 장난 삼아 아까 내 버린 것을 다시 집어서 팽겨쳤다.

그바람에 그 종이 상자가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조그만 종이 쪼박 하나가 나왔다.

《그것이 무엇인가》하고 순득이는 의심이 나서 얼른 뛰여가 집어 보았다.

그 종이를 집어 든 순득이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긴장된 눈초리로 사방을 한번 휙 돌아 보고 나서 그 종이를 펴 들었다.

그 도야지밥 속에서 나온 종이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나의 오빠만 이것을 보우.

저 내가 그 날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부른다니까 그 대로 가지 않았수. 나는 정말 어떻게 분한지 알 수 없수.

오빠, 오빠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내가 회사로 올 때 그런 것을 알려 주지 않았수.

오빠, 그러면 오빠도 우리들이 이렇게 이 곳에서 나오지 못할 줄은 몰랐구려.

벌써 우리들이 이 모양으로 이 곳에 있는지가 보름이나 되였소. 이 곳에서는 우리들 뿐 아니라 아주머니들도 고생들을 하고 있수.

오빠, 우리들은 날마다 한끼라도 시래기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은 때가 없수.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가슴이 울렁거리고 몸이 떨리여서!

그러나 또 그나 그뿐이요. 집에 가게 해 달라고 울고 야단을 하는 아이들도 있구려, 그러나 오빠, 나는 막 울었수. 울면 무엇하나—그래서 나는 우는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지.

〈얘야 우리가 바보다. 나쁜 놈들이 속이는 줄도 모르고 와서 무엇을 우니, 울면 내 보내 줄 줄 알구, 안 내 보내 주오, 어떻게서라두 우리들이 뛰여 나가야지〉 하고.

오빠, 그런데 벌써 세번째나 밖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우리들을 빼 내려고 하다 못했는데 못 나간 것은 우리들이 퍽 못나서였지.

우리들은 그런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었다우. 진작 알았더면 왜 못 뛰여 나갔겠수.

오빠, 이 공장 굴뚝에서 날마다 연기가 뭉게뭉게 나지—모두 거짓말 연기. 우리들은 요새 일을 안 하우. 저번에 이를 하고 나서는 우리들은 결심들을 하고 일들을 하지 않기로 했수. 우리는 못 하겠다니까 그럼 썩 나가라고 하겠지. 그래서 모두들 나오려니까 문을 열어 주나.

오빠, 그런데 요사이는 주인 측에서 와서들 또 다시 살살 꾀이겠지, 어떻게 우스운지…말야 일을 하면…(이하 일제 검열에서 삭제)

오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수. 저 밖에 있는 아주머니들께 우리들은 지금까지 일을 안 한다고—그리고 굴뚝 연기는 거짓말 연기라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나가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다 주우. 그 대답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가?

오빠, 내 옷이 더러우니 옷 가져 올 때에 옷 속에 깜쪽 같이 집어 넣어 가지고 오면 되겠수.

오빠, 이것을 쓰는데 사흘이 걸렸수.

오빠는 날마다 도야지밥 가지러 왔었지.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생각다 못해 도야지밥 속에다 집어 넣수.

어머니는 안녕하신지, 나 잘 있다고 말해 주우. 이 글은 오빠만 꼭 볼 줄 알면서—

○○○○○서 남순이》

편지를 다 읽고 난 순득이는 알았다는 듯이 한 번 웃었다. 그리고 아래'입술을 힘껏 깨물어 보았다. 그리고 다시 두 주먹을 힘껏 쥐여 보았다. 순득이의 눈은 가장 령리한 사람의 눈 같이 무섭게 반짝거리였다.

(1932년 《별 나라》)

※ 도야지는 돼지가 옳으나 옛책 대로 두었다.

쏘련의 벗들에게

УССР г. Полтава 16 средняя школа 4 й класс Скальскому В

보고 싶은 뽈따와 16 중학교 삐오네르 동무들! 우리들 사이에 오가는 편지로 서로 알게 된지도 벌써 반년이나 되였군요.

얼마 전에 우리 동무들은 행복한 삐오네르 생활의 기쁜 소식을 담은 동무들의 편지를 받고 정말 큰 명절을 맞는 것처럼 기뻐들 했습니다.

그동안 동무들은 우리들의 소식을 퍽 기다렸지요?

동무들이 알고 싶다고 한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을 말하려면 8·15 해방 전 이야기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때 철부지여서 아무 것도 몰랐지만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 왔는가를 잘 압니다. 1,700명이나 되는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아버지 없는 동무가 35명이나 되고 고아가 48명이나 된답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모두 왜놈 때에 삼신 탄광에서 굶주리다 못해 병에 걸려 사망되였거나 아무런 시설도 없는 위험한 탄굴 속에서 로동을 하시다 희생된 것이랍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었던 로동자의 아들 딸들은 또 탄굴 속에서 일하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생활은 행복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도 우리 나라의 보살핌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 남부럽지 않게 마음껏 배우며 뛰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아동절인 6월 1일부터 우리들은 나라에서 새로 지어 준 2층 벽돌집에서 공부하게 되였어요. 각 크루쇼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도 갖추어져 있고 창문을 열면 꽃향기 풍겨 오는 훌륭한 학교이지요.

우리들의 이 행복은 동무들의 나라 10월 혁명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10월 혁명 40주년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쁜 날에 80여명의 소년들을 소년단에 받아 들일 입단 서약식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0월 혁명 기념일에는 10월 혁명의 투쟁 모습과 쏘련 인민들의 힘찬 공산주의 건설 모습을 소개하는 사진 전람회도 가지게 됩니다. 이 전람회에서는 쏘련과 쏘련의 모범을 따라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눈부시게 건설되고 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형제 나라 소년들의 행복한 생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각 크루쇼크에서는 이 전람회를 위하여 있는 지혜를 다 하여 여러 가지 창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과 노래를 즐기는 동무들은 이날 이웃에 있는 20 중학교 동무들과 친선 체육 경기도 가지며 친선 야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친선 야회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 나라 민족 무용은 물론 쏘련 무용을 배우며 전체 동무들이 부를 수 있는 《삐오네르 행진곡》 《모쓰크바 만세》 《평화의 노래》 《우정》등 쏘련의 노래도 배우고 있습니다. 친선 야회에서는 지난 전쟁 시기에 1,211 고지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백 민지 영웅 아저씨와의 상봉도 가지며 공훈 탄부 박 창호 아저씨를 모시고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쏘련 로동자들의 모범을 받아 우리 나라 로동자 아저씨들이 일본놈들과 용감히 싸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혁명 40주년을 앞두고 진행하는 사업은 대체 이러합니다.

동무들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사업은 굉장하겠지요. 그 소식을 우리들은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조선 소년단 평양 제 16 중학교 대 위원회를 대표하여

강 철부 최 춘희 김 정옥

최 인준 김 성옥

애국렬사의 뜻을 이어

◇
박 정 렬
◇

날이 갈수록 선웅 동무의 학업 성적은 좋아져 갔다.

어느 때보다도 그는 활기를 띄고 동무들 틈에 끼워 명랑하게 뛰놀고 있다.

《벌써 우린 선웅이의 마음을 알아 차려야 했을건 데…》명랑하게 뛰노는 선웅 동무를 바라보며 분단 동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까지 그들은 선웅 동무가 로어 공부를 잘 못 한다고 무럭대고 나무라기만 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선웅 동무는 자기 마음을 몰라 주는 것이 안타까왔다. 그는 농사 일이 분주할 때《너의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일이 쉬우겠니?》하고 로력이 넉넉한 집을 부러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일'손을 돕느라고 로어 공부가 뒤떨어진 것이였다.

4월 어느 날 분단에서는 《애국 렬사들의 참된 뜻은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라는 모임을 가졌었다.

여느 때보다 이날 모임은 더욱 엄숙했고 활기를 띄였다.

먼저 분단 위원장 김 창걸 동무가 후퇴 시기 적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폭로하는 이야기를 했다.

얼마 동안 교실 안은 조용했었다.

소년단원들의 눈 앞에는 후퇴 시기 미국놈들과 《국군》놈들 그리고 그 졸개들인 《치안대》 놈들의 가지가지의 만행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원쑤놈들의 갖은 고문 앞에서도 그리고 학살 당하면서까지도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심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던 우리 아버지와 수많은 애국자들의 모습을! 나도 애국 렬사들의 이 훌륭한 뜻을 본받도록 힘쓰렵니다》. 현 달준 동무의 힘찬 이 웨침은 머리를 숙인 채 슬픔에 잠겼던 선웅 동무의 가슴에도 용기를 북돋게 하였다.

사실 선웅 동무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와 함께 다만 슬퍼했을 따름이다.

(달준 동무에 비하면 내 마음은 너무 약하지 않는가?)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선웅 동무는 어느덧 얼굴을 번쩍 쳐들고 처음으로 동무들 앞에 나서게 되였다.

이따금 목메여 이야기는 떠듬거렸지만 분단 동무들은 반짝이는 눈을 모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 고향에 기여든 원쑤놈들은 이곳에서도 수많은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무참히 죽였다.

이때 선웅 동무의 아버지도 후퇴하던 도중 체포되여 학살 당했던 것이다.

《로동당원인 우리 아버지는 사지를 짤리고 창으로 온몸을 찔리웠으나 마지막 숨'결을 가다듬으며 조선 로동당 만세! 를 웨쳤답니다》.

그는 이처럼 용감한 아버지의 아들인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그마한 난관 앞에서도 나는 어쩔 줄 몰랐지요. 집에 가서 어머니 일을 도와야 한다는 구실로 나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늘 걱정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이때부터 나는 명랑하게 뛰노는 동무들 틈에 끼워 놀기도 싫어졌으며 공부도 되는 대로 하게 되였어요》하고 선웅 동무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의 눈은 빛을 뿌리듯 빛나고 있었다.

이날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우리 애국자들의 목을 매여 거리로 끌고 다니며 생매장해 죽이던 그 원쑤놈들은 오늘도 우리 나라 남반부에 계속 둥지를 틀고 갖은 만행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지난 4월 16일 미군 헌병 80명이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용주동 부락을 습격하여 집들을 모조리 뒤지고 350만환의 물품을 빼앗아 간 사건만 들어도 동무들은 남조선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만행을 잘 알 수 있을겁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이 이야기는 소년단원들의 가슴에 참은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다.

다음에 분단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남반부에서는 수 많은 인민들과 애국자들이 놈들에게 억울하게 죽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자제들이 학교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자고 말했다.

모임에서 분단 동무들은 한결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보람있게 죽은 애국 렬사들의 가족들을 원호해 주며 더욱 사랑해 줄 데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 ✽

모임이 있은 후 2분단에서는 애국 렬사들의 집'일을 도와 드리는 사업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지난 한식에도 이들은 애국 렬사들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애국 렬사들의 묘지에 화환을 드리고 묘를 알뜰히 가꾸어 드렸다.

얼마 전에는 분단 사업 계획에 의하여 선웅 동무네 터밭을 가꾸어 주며 나무도 장만해 주었다.

김 정화 동무는 선웅 동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학습장을 만들 종이를 갖다 주었다.

지난 일요일에 2반에서는 김 종인 동무의 제의로 선웅 동무네 꽃밭도 아담히 꾸며 주었다. 그리고 모임을 가진 뒤부터 분단에서는 집'일을 돕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선웅 동무와 달준 동무에게 뒤떨어진 학습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하여 돌봐 주고 있다.

특히 선웅 동무의 뒤떨어진 로어 학습에 대해서는 최 정웅 동무가 도와 주기로 하였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짬짬을 타서 이들은 애국 렬사 가족들과 인민군대 후방 가족을 돕기 위해 마을 협동 조합에 나가 랭상모에 물을 주는 일이며 옥수수 파종도 도와 드렸다.

분단 사업 계획서에는 앞으로도 선웅 동무와 달준 동무가 걱정없이 학교에 나와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의 집'일을 도와 줄데 대한 사업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처럼 2분단에서의 아름다운 행동은 학교 대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까지도 칭찬을 받고 있으며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에도 분단에서는 벽신문 《홰'불》을 발간하여 소년단원들의 시선을 끌게 하였다.

죽는 순간까지 당과 조국 앞에 충실한 애국 렬사들의 정신들을 배워 나가려는 마음들과 살인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기사들 가운데에 선웅 동무와 달준 동무의 글도 실려 있었다.

선웅 동무는 자기 글에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배려를 돌려 주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애국 렬사의 아들이라는 긍지를 간직하고 영웅 조선의 소년단원답게 더욱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랄 것이다. 다음 학기엔 나도 꼭 최우등을 하련다》라고 끝을 맺고 있었다.

평남 대동군 제1중 학교 대에서

《영예의 동록》 표창에 빛나는 모범 소년단원

공부도 잘하고 집'일도 잘한다

량강도 혜산 사전 부속 인민 학교 대 제1분단 오 길자 동무는 5년간 계속 최우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결석도 없이 공부해 온 동무입니다.

그는 자기의 하루 생활표를 어김 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와 함께 일어나는 길자 동무는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드리면서 동생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잠'자리를 걷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2학년에 다니는 동생 병철이도 자기 맡은 뜨락을 말끔히 쓸군 합니다.

이렇게 아침 청소가 끝나면 길자 동무는 동생들과 함께 아침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돌아 오면 길자 동무는 자기의 생활표 대로 그날의 공부를 끝내고는 꼭 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군 합니다.

그리하여 길자네 세 형제는 모두 최우등생으로 이 학교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오 길자 동무

여름 방학은 가까와 오는데!

우리들의 그림체치

보람 있게 지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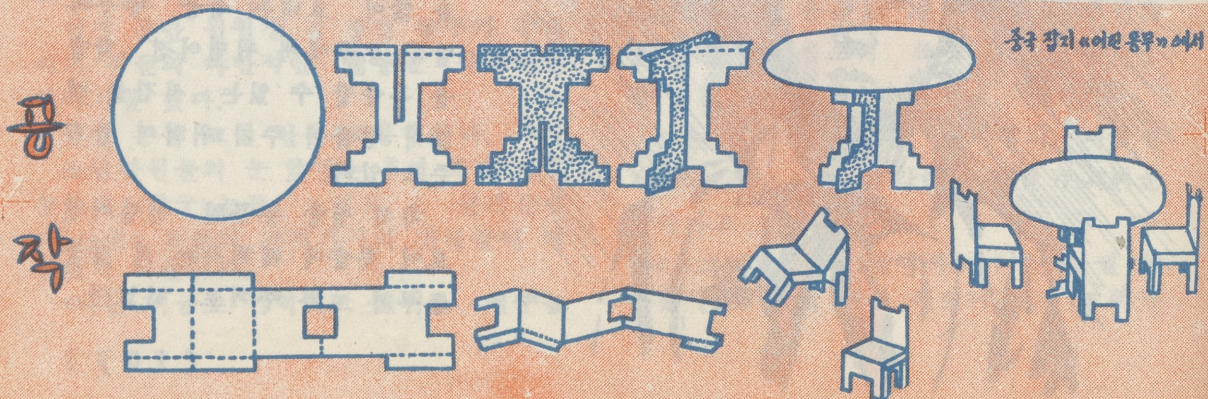
먼저 계획을 잘 세워놓고…
과제, 야영, 우등'불모임,
애국렬사 가족, 인민군대
후방가족들의 로력 협조, 독
서, 교편물 제작……
참 보람 있는 여름 방학
이구나!……

기나긴 여름 방학인데

영화관

계획은 무슨 계획?
기나 긴 방학인데, 실컷 놀아도 되겠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서 나타난

이 모 저 모

수집하며 만들며 배운다

배운 것을 기본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훌륭한 실험실을 꾸렸다.

평북 녕변 1중 학교대 실험실에서

아름다운 일

함남 신포군 련호 인민 학교 대 1 분단 동무들이 리 호직 동무의 집 앞에 큰 나무가리를 쌓아 올렸다.

호직 동무의 아버지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다. 요새 며칠간 그의 어머니는 앓아 누웠다. 그래서 나무 걱정에 싸인 호직 동무를 도와 나선 분단 동무들이 해 온 나무가리다.

황주 2중 2분단 동무들은 김 영배 동무를 도왔다. 그는 아버지를 미제 원쑤에게 빼앗겼다. «에 우린 영배를 도와 주자»어느 날 분단 모임에서 모두들 의논했다.

파철을 모아 얻은 돈으로 학습장과 잉크를 사 주고 영화 감상료를 대주었다.

작년에…

벌레를 몽땅 잡겠어요

강원도 안변군 내 소년단원들은 1,750개의 새둥이를, 평북 향산군 북신현 인민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150개의 새둥이를 만들어 올렸다.

금년에…….

피마주밭

«이젠 산판으로 가야겠군»

송아지—풀뜯어 먹으러 왔더니 여기도 밭이 됐구나 이젠 산판으로 가야겠다.

—황남 신천 제 1중 학교 대에서—

꽃다운 마음들

우리 나라를 지켜 용감히 전사한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의 묘지 앞에는 늘 생생한 꽃다발이 놓인다. 요새는 아담한 꽃밭이 새로 생겼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구요. 원산 6중과 강계 1중 소년단원들이지요

무슨 큰 일을 생각해 내는지?

큰사업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는데 여름을 맞이한 평남 순안군 남산 인민 학교 대.

«가져 오라면 가져 와!»

«아니! 우리 마을에 무슨 복숭아 살구가 있다 구…?»

평남 승호 제1 인민 학교 대에서 있은 일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저것이나 슬적 가져다 도루 내자.

(강계 3중, 서중 고중 대들에서)

산에서 산채를 안 캐고?……

량강도내 산간 지대 일부 학교 대들의 «꼬마 5개년 계획»활동 내용에는 산채, 버섯, 약초 캐기가 없구요. 함북, 함남, 강원도 내 해변'가 일부 학교 대들의 계획에는 고기 비늘 수집, 수산 협동 조합, 수산 사업소 일돕기가 빠졌대요.

너도 나도 50 포기

자강도 동신 고중, 시중 고중 대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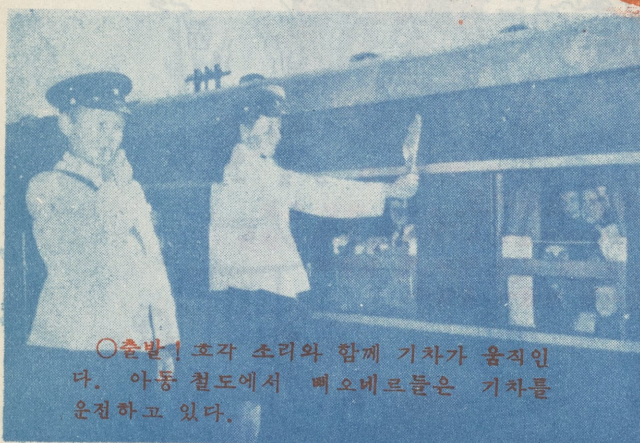
«꼬마 5개년 계획» 활동 계획에는 «해바라기 피마주 1인당 40~50 포기 심기»

«파철 1인당 2kg~3kg 수집»등이 들어 있다.

«초급반 형님들도 50포기 우리도 50포기?!»

하고 인민반 2학년 어린 학생들은 놀랬다.

그림 리춘수

쏘련 삐오네르들은 가장 행복하다

○출발! 호각 소리와 함께 기차가 움직인다. 아동 철도에서 삐오네르들은 기차를 운전하고 있다.

○ 모쓰크바 545학교 어린 영화 기술자들이 자기 동무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고 있다.

쏘련에서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40년이 지나 갔다.

그동안 쏘련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보다도 몇십년이나 뒤떨어진 짜리 로씨야로부터 오늘처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쏘련 공산당과 정부에서는 장래 공산주의 건설자들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리고 있다.

쏘련에는 가는 곳마다에 어린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뛰놀 수 있는 삐오네르 궁전과 아동 영화관, 극장, 체육회관, 아동 철도 등이 설치되여 있고 여름이면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에 있는 수많은 휴양소와 야영소들이 삐오네르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해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에 도시와 농촌에서 전반적 10년제 중등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신학년도부터 대학 및 기술 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상급반 학생들에게서까지도 수업료를 폐지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쟁 시기 부모를 잃었거나 량부모가 직장에 다니며 형제들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숙 학교를 세울 데 대한 결정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지난 해부터 건강에 좋고 경치 좋은 지역들에 수많은 기숙 학교들이 설치되였다.

밝고 넓은 교실과 훌륭한 침실 그리고 잘 정비된 식당과 과외 학습을 위한 실험실들이 잘 갖추어진 이 학교들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집에서처럼 행복하게 살며 배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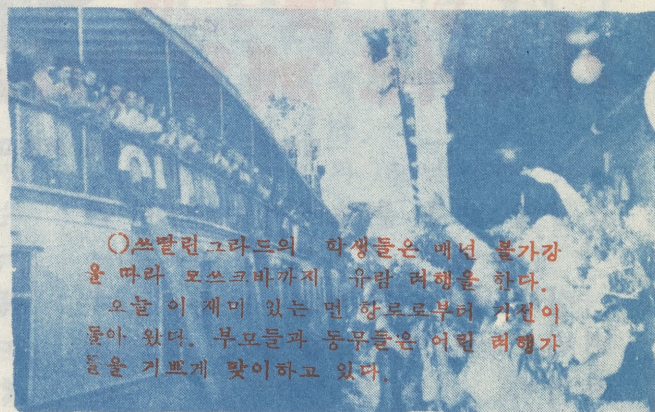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공화국에서만 해도 초등 학교, 중등, 전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수는 약 700만 명이나 된다.

6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쏘련에서 10년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는 630만명 즉 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2배 이상에 달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학교들에서 삐오네르들은 각종 크루쇼크를 통하여 자기의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져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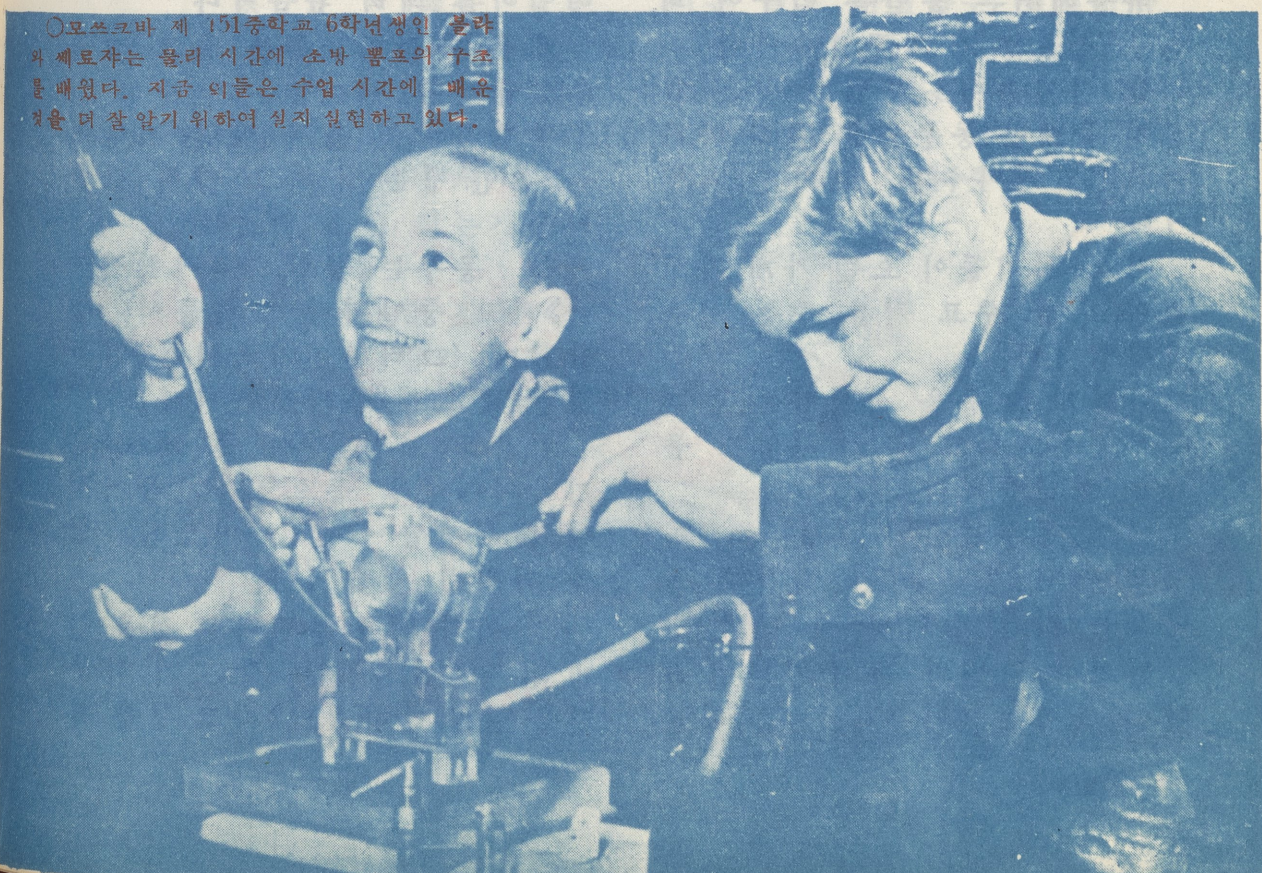
이처럼 어려서부터 자기의 희망대로 마음껏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쏘련 삐오네르들은 공산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공산주의 건설자로 씩씩히 자라나고 있다.

쏘련 삐오네르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소년들보다도 가장 행복하다.

○앞날의 훌륭한 기술 일'군이 될것을 희망하는 모쓰크바 기숙학교 목공 크루쇼크원들은 공작실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쓰딸린그라드의 학생들은 매년 볼가강을 따라 모쓰크바까지 유람 려행을 한다.

오늘 이 재미 있는 먼 항로로부터 기선이 돌아 왔다. 부모들과 동무들은 어린 려행가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다.

○끄림의 아름다운 곳에 아르떼끄라는 전련맹 삐오네르 야영소가 있다.

여기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삐오네르들이 각곳에서 모여와 여름을 마음껏 즐긴다.

○모쓰크바 제 151중학교 6학년생인 블라와 쎄료자는 물리 시간에 소방 뽐프의 구조를 배웠다. 지금 이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실지 실험하고 있다.

기욱이는 깨달았다

—황해남도 안악 제 1 인민 학교 대 제 5 분단에서—

최 옥 선

봄을 맞은 분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였습니다.

실습지도 가꾸고 운동장 주변에 꽃밭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반들에서는 풀밭을 일쿠어 피마주 밭으로도 가꾸었습니다.

늘 자기들이 가꾸는 밭을 열심히 돌보던 동무들은 돋아 나기 시작한 피마주를 보며 기뻐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으뜸 가게 가꾸겠다고 물 주고 거름 주는 일을 경쟁합니다.

이렇게 로동을 사랑하는 분단 동무들은 학교 복구 사업도 돕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재목을 날라다 주고 어떤 동무들은 벽돌과 돌 나르는 일을 신이 나서 합니다.

한참이나 빙빙 돌아 가기만 하던 기욱이는 《아무래두 돌 나르는 일이 간단하구 좋아, 우리 누구 하나 더 데려다 큰 돌을 맞들어 나르자》하고 한 마을에서 다니는 창남이더러 말했습니다.

《응 그래》 창남이도 좋아하며 영일이를 데려 왔습니다.

셋은 큼직한 돌을 들고 발을 옮겼습니다.

몇발자국을 옮겨 짚던 기욱이는 손만 대는 척 하고 따라 갔습니다.

두 동무는《점점 무거워지누나》하고 중얼거리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기욱이는 빙글빙글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이윽고 얼마 가지 못 해 돌은 기욱이의 발 등으로 기울어지며 떨어졌습니다. 하마트면 발을 다칠번 했습니다.

기욱이가 꾀를 부린다는 것을 알게 된 영일이는 《너 같은 거 하군 일을 같이 안하겠다》하고 성을 내며 다른 아이들한테로 갔습니다.

《인전 안 그래. 같이 하자야—오너라》하고 소리 치다 못해 기욱인 돌 우에 주저 앉았습니다.

동무들은 벽돌을 들고 기둥을 메고 노래도 흥겨이 오고 갑니다.

우득하니 생각하던 기욱이는 《얘 창남아 일을 끝내고 가면 우리 계획이 틀어지겠어. 무슨 핑겔 대구 집에 가자 응》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동무는 약속이 맞았습니다.

기욱이는 어머니가 앓아서 집일이 바쁘다고 조퇴했습니다.

창남이는 한참 빙빙 돌아 가며 틈만 보다가 물을 좀 마시고 와서 하겠다고 핑게 대고는 빵소니쳤습니다.

※ ※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창남이는 학교에 왔는데 기욱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창남이에게 기욱이가 왜 학교에 오지 않는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려 줄 것두 같구 선생님이 욕할 것 같아서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하고 창남이는 부끄러워 얼굴을 숙이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꾸짖어요》하고 선생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하셨습니다.

이때 분단 동무들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기욱이가 조퇴할 때 선생님에게 한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하고 여러 동무가 말했습니다.

어제 일을 끝마치고 집에 가던 분단 동무들이 기욱이와 창남이가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기욱이와 창남이는 어쩔줄 몰라 그냥 도망 치고 말았습니다.

기욱이는 이번 뿐이 아닙니다. 청소 당번 때도 빵소니 치는 때가 많고 식수하던 날도, 꽃밭 꾸미는 날도 빠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타이를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은 창남이가 학교에 나온 것을 칭찬했습

니다.

이날 분단 열성자들은 기욱이도 잘 타일러 학교에 나오도록 하자고 의논했습니다.

※ ※

방과후 분단 위원장 형호가 기욱이네 집 마당에 다달았을 때 기욱이 아버지가 협동 조합 작업 반장 아저씨와 같이 나오시고 있었습니다.

형호가 찾아 온 사유를 이야기하자 기욱이 아버지는 펄적 뛰며 기욱이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한참 꾸짖던 기욱이 아버지는 작업반장 아저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앤 학교도 저렇게 빼소니 치니 어떻거면 좋겠소, 야단 났수다》하고 안타깝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조합에야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오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일도 싫어하는 사람이야 소용 없지요. 그런 앤 이 다음에 우리 조합에두 안 넣어 주겠수다》하고 작업반장 아저씨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호는 무안해 쩔쩔 매는 기욱이를 한참 바라보다 꼭 학교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는 기욱이네 집을 나섰습니다.

기욱이 어머님도 따라 나오며 바래 주었고 기욱이는 멀리까지 따라 왔습니다.

※ ※

이튿날 선생님은 기욱이가 학교에 나온 것을 기뻐하며 타일렀습니다.

《기욱이! 동무들이 실습지에 심은 피마주 해바라기들이 싱싱 자라나는 걸 봤지요. 얼마 안 있으면 꽃피고 열매 맺을 겁니다. 얼마나 일한 보람이 있습니까!

기욱이가 즐겨 가지고 노는 뽈이나 연필, 공책 좋은 신발, 그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의 로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욱이처럼 그렇게 일을 싫어한다면 기욱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생길 수 있겠어요. 기욱이! 로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남의 로력을 바라고 살려는 사람이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깨달을 수 있지요?》.

기욱이는 《네》하고 눈물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욱이는 이날 집에 돌아와 작업반장 아저씨가 하시던 이야기와 선생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며 일을 즐기는 사람만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 ※

그 후부터 기욱이는 어떤 일이든지 부지런히 한다고 분단 동무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 몸의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공화국 영웅 김 정학의 이야기——

◇리 만 규◇

눈물 없는 소년

갓난 애기 주먹 만큼씩한 눈'송이가 밤새껏 쏟아져 내렸다. 아침마다 울바자를 넘나 들며 재잘거리던 참새들도 눈 속에 파묻혀 버렸는지 얼씬하지 않았다. 정학이는 이날 아침에도 여니때와 같이 멀숙한 밀죽을 한 사발 들여 마시고 행길에 나섰다. 갑자기 세찬 눈보라가 일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 벼랑'길은 집채 같은 눈사태가 무너져서 잡시간에 꽉 막히군 하였다.

두툼하게 옷차림을 하고 나선 아이들은 좋은 일'감이나 생긴 듯이 밀치락엎치락하며 눈사태를 헤치고 큰 길에 나섰다. 그러나 너덜너덜한 홑바지 저고리를 입고 누덕누덕 기운 양말에 짚신을 신은 정학이는 허리춤에 책보를 졸라 매고 궁둥방아를 찧으며 겨우 그 뒤를 따라 걸었다. 이때 앞에 가던 부자'집 애가 정학이를 획 돌여다 보더니 《이 거지 같은 자식이 또 따라 오네. 뭣이 그렇게 추워서 우쭐우쭐 떨고만 있는거야! 보기 싫어!》하며 놀려 주었다. 《뭘? 거지 같다구? 이 망나니 같은 녀석아!》 정학이는 성이 벌컥 치밀어서 덤벼들었다. 깔고 깔리우고 뒹굴고 하는 싸움이 눈'길에서 벌어졌다. 정학이는 우쭐대는 부자'집 아이놈을 날쌔게 가로 타고 앉아 눈 속에 틀어 박고 때려 줬다.

그 애 패거리들이 정학이한테 또 달려 들었다. 정학이는 번개같이 손을 써서 닥치는 대로 후려 갈겼다. 얻어 맞은 애들은 빌빌 울면서 달아났다. 그러나 힘을 다 쓴 정학이는 마지막에 힘깔 센 애들한테 깔리워 숱한 매를 맞았다. 《이놈아! 손 들었지? 빨리 말해 봐!》 아이들은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정학이는 손들기는 고사하고 마지막까지 대항하며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았다.

정학이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온 정학이는 얼굴이 딩딩 붓고 다리가 시퍼렇게 멍이져 있었다.

어머니는 몹시 걱정하며 《정학아! 너 왜 그렇게 됐니?》 하며 캐여 물었다. 그러나 정학이는 능청스럽게 《길'가에서 장난을 하다가 넘어졌어요》하며 핑계를 하였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였다.

아침을 굶고 학교에 간 정학이는 점심 시간이 되자 아이들을 피해서 학교 뒤뜨락 버드나무 속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만 잠이 들어서 종이 난 줄 모르고 있다가 교실에 늦게 들어 갔다.

짐승 같은 왜놈 선생은 《왜 늦게 들어 왔느냐?》하며 미처 대답할 새도 없게 다짜고짜로 정학이를 막 때렸다. 가뜩이

나 굶어서 비츨거리던 정학이는 그 자리에 쓰러 졌다. 그리고 코에서는 코피가 쏟아져 내렸다. 왜놈 선생은 정학이를 일궈 세우고 새다리 같은 그의 다리를 회차리로 사정 없이 후려 갈겼다. 그래도 정학이는 혀를 깨물고 끝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정학이는 이 사정을 어머니에게 말하게 되면 어머니는 틀림 없이 또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참았던 것이다.

정학이는 수업료를 여러 달 채 바치지 못한 탓으로 소학교 4학년 때에 끝내 학교에서 쫓겨 났다. 그 후 고향 강원도 석왕사를 떠난 나 어린 정학이의 뒤에는 어디서나 더한 고생과 채찍이 따라 다니고 있었다.

그가 선 고지에 공화국기 휘날렸다

입대하던 날 정학이는 거울 앞에 서서 벙글벙글 웃기만 하고 있었다. 맵시 나는 군복, 붉은 색 견장, 머리에 빛나는 오각별…정학이는 난생 처음으로 지난 날 거지도 아니고 품팔이'군도 아닌 떳떳한 조선의 청년! 자기를 발견하였다.

힘들면서도 보람찬 훈련이 날마다 진행되였다. 행진을 하고, 엎더여 기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하는 일들이 정학이한테는 퍽 마음에 들었다.

정학이는 모든 훈련에서 우수하였다.

정학이는 모든 일에서 열성을 내였다. 정학이는 총을 잘 쏘고, 수류탄을 멀리 던지고, 기계 체조를 잘 하는 데만 소문 난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데서도 이름이 나서 여러번 상장을 받았다. 벅찬 훈련 생활에서 2년이 지나 갔다.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리 승만을 시켜 우리 조국에 불을 질렀다. 정학이는 언제나 성난 사자와 같이 대렬의 앞장에 서서 원쑤를 무찌르며 앞으로 나아 갔다.

그해 7월 1일 서울에서도 퍽 나가서 있는 진천에는 인민 군대에게 쫓겨 나간 적들이 다리 부러진 노루처럼 한곳에 모여 들어서 우리 부대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었다. 적과 우리 부대 사이에는 진천 앞 306 고지를 빼앗기 위한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사람에게 팔 다리와 같이 중요한 그 고지를 적들은 먼저 차지하려고 날뛰였다.

우리 부대의 공격이 시작되였다. 그런데 미처 고지에 다닫기 전에 상부로부터 공격을 그만 두라는 명령이 내렸다. 다른 방향의 적을 먼저 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렬에서 멀리 앞장 서 나간 정학 영웅은 그걸 알리 없었다. 영웅은 벌써 고지 중턱에 가 있었던 것이다.

밤 11시다. 적은 벌써 고지에 기여 오르고 있었다. 고지에 혼자 오른 김 정학 영웅은 밀려 드는 많은 적을 보고 일시 가슴이 움출하였지만 적 앞에서 뒤'걸음을 칠 수는 없었다.

김 정학 영웅은 침착하게 중기의 안전 장치를 풀고 다음에 방아쇠를 눌렀다. 조용하던 고지에 벼락이 떨어졌다.

고지에 우리 군대가 한 명도 없을 줄을 믿고 너털웃음을 하면서 올라 오던 적은 아닌 밤중에 중기 불 벼락을 받고 너무 황급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바른 거리에서 쏜 중기탄은 원쑤들의 배때기를 두세놈씩 꿰뚫으며 날아 갔다.

적은 삼단 같이 쓰러지고 딩굴고 돼지 멱따는 소리를 지르며 흩어져 달아났다.

기진 맥진하여진 김 정학 영웅은 온 몸이 솜 같이 피로해졌는 데 실패를 당한 적들은 성한 놈들을 추려 가지고 다시 달려 들었다. 그러나 이 때에 그의 중기에는 탄알이 떨어졌다. 어떻게 할가?

김 정학 영웅은 잠시 눈앞이 아찔하여 온 몸에 소름이 끼치고 등'골에서는 식은 땀이 주루룩 흘러 내렸다.

《막장이 난 것 같다! 그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자!》.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네개밖에 남지 않은 비상용 수류탄을 꺼냈다.

수류탄은 산뿌리를 들어 뺄듯이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적의 무리 속에 날아 들었다. 불'길이 번쩍할 때마다 수십명의 적의 밸통이 째지고 다리가 날아 났다. 어찌나 혼이 났던지 적은《사람 살려라!》하고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그러나 몇십명의 악질들은 김 정학 영웅이 혼자 있고 탄알이 떨어진 줄 알았던지 쉬파리떼 같이 그냥 달려 들었다.

이제는 수류탄도 떨어졌다. 남은 것은 공병삽 하나 뿐이다. 《옳지 공병삽을 써보자!》김 정학 영웅은 날쌔게 공병삽을 들고 적들이 쏘다니는 산비탈에 바싹 다가 섰다. 우둔한 적들은 눈이 사발만 해서 그 앞을 지나 갔다. 바로 그때였다.

《악!》하고 소리와 함께 적의 몸뚱아리와 대가리가 두개로 갈라져서 벼랑에 나딩굴었다. 김 정학 영웅은 사정 없이 공병삽으로 적의 목덜미를 내리 치고 골통을 까부셨다. 적은 목 사발이 되여 하나, 둘 쓰러졌다. 다른 놈들은 그걸 보자 눈이 뒤집혀서 뿔뿔이 줄행랑을 쳤다.

날이 밝았다. 산골짜기는 100여명의 적의 시체로써 차 있었다. 솟아 오른 아침 해'살과 함께 고지 우에는 공화국 기'발이 휘날렸다.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전진해 오는 부대들의 환성이 점점 가까이 들려 왔다. 《만세!》《만세!》.

중기와 함께 적을 찾아 가서

부대는 전진하여 306고지에서 멀고 먼 황강을 해방시키라는 새로운 전투 명령을 받았다.

마지막 숨통을 놀리운 적들은 인민군의 공격이 두려워 하늘이 까맣게 항공기를 띄우고 줄폭탄을 누비듯이 제

속 멸구었다. 길이 끊어지고 다리도 끊어졌다. 식량도 폭탄도 탄알도 떨어졌다. 사랑하는 동무들도 하나 둘 넘어지고 포와 총도 줄어 들었다. 공격은 매우 힘들게 되였다.

이런때 김 정학 영웅은 장관 앞에 세번이나 가서 《저를 적 속에 들여 보내 주시오. 그놈들을 혼쌀 내겠습니다》하고 졸라댔다. 장관은 처음에 《안되오, 혼자 가는건 위험한 일이요. 만약 들어 간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소》하고 거절해 보았으나 끝내 허락하였다. 침착 대담하고 정해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기를 멘 김 정학 영웅은 개미도 얼씬 하지 못하는 적의 경계망을 뚫고 밤을 타서 적진에 들어 갈 수 있었다.

날이 휘연히 밝아 오는 샛녘이였다. 깊은 삼림 속에는 잠을 깬 메'새들이 프르룩 푸르룩 날아 다니는 소리만이 들려 올 뿐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김 정학 영웅은 시장기도 잊어 버리고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 앉아 쌍안경으로 주위를 살펴 보았다.

마침 이때에 약 300메트르 앞 언덕 바지에서 숱한 적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눈에 띄였다. 《홍! 이 놈들, 밥이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어 가나 보자!》 이렇게 김 정학 영웅은 혼자'말을 하며 량가달진 나무에 중기를 바싹 부치고 불벼락을 들씌웠다.

인민군이 멀리에만 있겠거니 하고 마음놓고 흥얼거리며 식사하던 놈들은 불의에 난데없는 불벼락을 맞고 짐승들처럼 네발걸음을 하며 악다구니를 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놈들에게는 미처 총을 잡을 사이도 없고 또 콩볶듯 하는 총 소리가 좁은 골짜기에 메아리쳐서 대체 어디서 날아 오는 총알인지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적들은 몇십분 동안에 150여명의 더러운 시체를 남기고 총 한 방 쏘지 못한 채 달아나 버렸다.

그날 밤 우리 부대는 황강을 해방시켰다. 김 정학 영웅은 다시 자기 대오에 들어 섰다.

그의 공훈은 짧은 시일 내에 널리 알려졌다.

1950년 7월 31일 그는 벌써 공화국 영웅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다.

* *

김 정학 영웅은 지금 세상에 없다.

그는 자기 몸의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들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였다.

《영예의 등록》 표창에 빛나는 모범 소년단원

벽보도 훌륭한 솜씨로

김 정오 동무

《영예의 등록》표창에 빛나는 김 정오 동무는 사리원 사범 부속 인민 학교 대 벽보 주필입니다.

어느날 10분단 통신원으로부터 남학생들이 녀학생들을 때린다는 통신을 받았는데 다른 분단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정오 동무는 10분단에서 운동장에 실습지를 만드는 날 녀학생들이 굳은 땅을 못 파서 애쓰는 것을 도와 준 광만 동무를 그림과 글로 칭찬하여 소개했습니다.

녀학생들을 때리던 동무들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단 벽보 주필 모임을 가지고 벽보를 더 잘 만들데 대하여 서로 의논도 하고 분단 벽보를 만드는데도 참가하여 그들을 도와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분단 벽보들도 훌륭히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견학 오는 동무들은 누구나 정오 동무의 훌륭한 솜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연포리를 찾아서——

김 성 훈

교수를 마치는 종이 《뎅그렁 뎅그렁》 울리자 답사대로 선발된 학생들은 행장을 갖추고 유달리 상쾌한 얼굴로 운동장에 모였다.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개였다.

우리 후창 고급 중 학교 민청 위원회와 소년단 대 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이 자기 고향의 력사에서 가장 크게 자랑하는 김 형직 선생님의 항일 투쟁 전적지인 연포리를 답사할 것을 계획하고 약 30명으로 답사대를 조직하였다. 답사대는 기록반과 스케취반으로 답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갖추었다.

이윽고 교장 선생님께서 답사대에서 해야 할 사명과 현지에서 주민들과 접촉할 때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례절에 대하여 말씀이 끝나자 일행은 민청기와 소년단기'발을 선두로 목적지를 찾아 떠났다.

후창에서 연포리까지는 약 40리, 그 도중에는 하산령이라는 20리나 되는 높은 령을 넘어 험준한 산'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도 맨 몸으로가 아니라 량식과 답사에 필요한 책자들과 각종 도구들이 든 불쑥한 배낭을 지고 가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마음은 고향과도 같이 그립던 곳으로 간다는 기쁨에 충만되여 있었다. 해가 서산 마루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선 인민 학교를 찾아서 교장 선생님이 안내하는 집에 짐을 풀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우리들은 곧 사업에 착수했다. 도착한 날 저녁에는 김 형직 선생님이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해 산을 넘는 것을 목격한 마을 늙은이들께서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오전 중에는 김 형직 선생님이 경찰놈에게 끌리여 들어 가셨던 집과 놈들의 눈을 피해 오르셨던 산을 답사 하였다. 이 곳 연포 인민 학교 교장 선생님의 성의 있는 도움으로 첫날 저녁 인민 학교 교실에서 전 병회 할아버지와 김 병흡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전 병회 할아버지는 지금 58세인데 전 철의 동생으로 당시 전 철과 동거하였다. 전 철의 어머니가 김 형직 선생님의 탈주를 도왔다.

김 병흡 할아버지는 중국 토로자에 거주하였는데 선생님이 압록강을 건너 처음 이 집에 들렸고 병흡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도와 드렸다)

두 할아버지는 지금 60고개이나 우렷진 손과 건장한 몸매가 로력 속에 단련된 지난날을 력력히 말해 준다.

처음 전 병회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지금부터 32년전 눈이 한 치 가량 내린 음력 10월 초순이였다.

전 병회 할아버지가 콩 마당질을 하고 있는데 포평 주재소 순사보 아끼시마가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 모자를 쓴 사람과 함께 오고 있었다.

마침 이때 후창 쪽에서 오던 후창 경찰서 경부와 만나게 되였다. 이들은 전 철의 집에 들어 가서 점심 밥을 청하고 방에 들어 누웠다. (당시 전 철의 집에서는 객주도 하고 점심도 하였다)

한참 후에 중절 모자 쓴 사람이 밖에 나와서 병회 할아버지가 마당질하는 곁을 지나 가는 한 익환과 무어라고 소곤거렸다.

《이때에야 나는 그 분이 김 의사인 줄 알지 않았겠소, 하하》하고 웃고 나서 말씀을 계속하였다.

(당시 김 형직 선생님은 김 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선생님은 한참 섰다가 부엌 문 앞에 가서 이 집 어머니에게 순사들에게 밥을 늦게 올려 보내고 순사가 일어나서 묻거든 모르겠다고 말할 것을 부탁하고 곧 앞 개울을 건너 가셨다.

선생님은 그때 두 팔을 등 뒤로 결박되였으나 두루마기를 우로 걸치였기 때문에 결박된 것은 알 수 없었다.

《진작 알았더면 포승'줄(결박한 끈)을 풀어 드렸을 걸, 지금두 생각하면 한스러워 못 견디겠소》.

할아버지는 몹시 한스러운 듯이《후—우》 한숨을 길게 내 쉬고 나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회양'골 쪽으로 건너 가신 선생님은 마즌편 뾰족한 봉으로 오르기 시작하시였다.

선생님이 봉우리에 거의 올랐을 때 순사놈들이 황겁해서 방에서 뛰여 나오며 《부도선인 (놈들은 독립 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을 이렇게 불렀다.) 어디 갔는가》고 할아버지를 보고 고아댔다. 할아버지는 그저 모른다고만 했다. 놈들은 거짓 말을 한다고 할아버지를 위협하며 호통을 뽑기 시작했다.

《나리하고 동행하든 분이 길이 바빠 먼저 떠나는 줄만 알았지 〈죄인〉인 줄이야 누가 알았소》

전 병희 할아버지는 슬쩍 이렇게 대답했다. 밖에서 한참 고아대기 시작하자 부엌에서 밥을 짓고 계시던 전 병희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나와서 《자기는 길이 바빠서 먼저 가야겠으니 자기 점심은 그만두라고 하면서 후창 쪽으로 가던데요》하고 김 형직 선생님이 떠나신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순사놈들은 망원경으로 후창 쪽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놈들은 목을 획 돌려 마즌편 산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때 선생님은 봉우리에 거의 오르셨으나 그만 발각되고 말았다.

순사놈들은 권총을 빼 들고 위협도 해 보고 또 《당신이 내려 오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나니 제발 내려 오라》고 손을 비비며 애원도 하였다.

이제 산에 쫓아 오른대야 헛 수고일 것을 안 놈들은 포평 쪽으로 돌아 갔다. 놈들이 포평 쪽으로 돌아 간 리유는 빨리 주재소에 가서 우 아래 주재소에 련락을 취하여 산을 수색하자는 의도에서였다.

그 뒤의 일에 대해서는 김 병흡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었다.

김 병흡 할아버지는 토로자(7도구와 8도구 사이)에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 날 팔 마당질을 하고 계시는 데 강쪽에서 지팽이에 겨우 의탁해서 오는 사람이 있었다. 김 형직 선생님이였다.

김 병흡 할아버지는 선생님이 8도구에 계실 때부터 친히 알고 있었고 며칠 전에 선생님이 포평에서 체포되였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다.

《포평에서 체포되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요》하고 물었으나 선생님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병흡 할아버지는 방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으나 만일을 생각해서 김치움에 짚을 깔고 선생님을 모셨다. 그리고 곧 미음과 김치 국을 대접하였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선생님은 그 후의 사연을 말씀하시였다.

——선생님은 연포에서 탈주하시여서 봉에 올라 갔다가 밤을 리용하여 두지동을 지나 압록강 옆에 높이 솟은 독봉에 오르셨다. 독봉에서 칼날진 돌에 비비여 포승을 끊고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리고 계시였다. 나무가 무성한 무시무시한 산 속에서 살을 어이는 찬 바람을 맞으며 사흘밤을 지내시고 나흘째 되는 날 밤 산을 내려가 보았으나 아직도 강 한복판은 2메터 가량 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다시 독산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다음 날은 갑자기 몹시 추웠다. 소 대한 추위보다 더 혹할이였다. 한지에서 이 추위를 견디여 내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였으나 어서 압록강을 건너야 할 선생님에게는 차라리 좋은 일이였다.

5일만에 다시 밤을 타서 산을 내렸다. 모진 추위에 강물은 얼어 붙었으나 종이'장 같이 얇은 얼음 밑에서는 흐르는 물'소리가 소란스러웠다. 훤한 달'빛에 물밑까지 알른알른 들여다 보이는 유리알 같은 얼음은 방금 깨여질 것만 같았다. 선생님은 배밀이를 해 가면서 조심조심 강을 건느셨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김 병흡 할아버지는 감탄해서 말씀하셨다.

《김 의사는 하늘이 낸 분이요. 보통 사람이면 독산에서 남 모를 귀신이 되였을 거요. 글쎄 하늘이 도왔다니까》.

다음 날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여 얼었던 강이 다시 풀리고 약 15일간은 가을 진달래가 피고 나비가 다시 날았다 한다. 그 날 밤 선생님이 압록강을 건느시지 못했다면… 아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다. 우리들은 손에 땀을 쥐며 귀를 기울였다.

선생님이 병흡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오시던 길로 검은 의복을 입은 몇 사람이 올라 왔다.

병흡 할아버지는 곧 선생님을 뒤'산으로 모시고 올라 갔다.

병흡 할아버지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이 집에 살던 분이 독립군과 련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왜놈들은 온 가족을 강물에 처넣어 죽였다.

병흡 할아버지는 형직 선생님의 뒤를 따라 오는 것이 순사놈이라면 자기도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희생될지언정 선생님을 구원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충만되였었다. 다행히 그들은 왜경이 아니고 새(마초) 사려 온 중국 사람들이였었다.

선생님은 그 길로 8도구를 거쳐 신파자에 가서 약 15일 후 무송에 들어 가셨다. 이때 형권 선생님이 형님을 모시고 동행하시였다.

두 늙은이의 이야기는 밤 늦게까지 계속되였다.

놀아도 피곤하다는 봄 밤, 특히 짐을 지고 40여리 산'길을 더듬어 온 어린 학생들이 어찌 피곤하지 않으련만 선생님의 불굴한 투쟁에 마음이 끌려 눈도 까딱하지 않는다.

두 할아버지의 말씀은 김 형직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선생님과 같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로 어린 가슴들을 불타게 하였다.

다음 날 우리들은 전 철의 집을 찾아 갔다.

지금은 집의 일부를 개축해서 그 전날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선생님의 고매한 정신을 더듬 듯이 집 주위를 하나 하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들은 다시 선생님이 오르셨던 가파롭고 줄바위진 봉으로 선생님의 자취를 찾아서 올랐다.

이 봉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천제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왔다.

봉우리에 오른 우리들은 기'발을 휘날리며 마을을 굽어 보았다.

선생님이 놈들의 눈을 피하여 마음 조이며 오르셨던 천제봉에 우리들은 지금 활개를 펴고 섰다.

선생님이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시던 조국의 해방과 독립, 그것을 위하여 간난신고를 이겨내던 천제봉의 전설, 오늘 선생님의 고귀한 뜻이 실현된 현실 속에 천제봉은 전설을 자랑하며 우뚝 솟아 있다.

선생님의 고결한 심정과 같이 깨끗하고 강의한 의지로 거연히 솟은 천제봉!

학생들은 감격에 넘쳐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스케취 반 동무들은 여기에서 제 각기 그림을 그렸고 기록반 동무들은 자기의 북바치는 감격을 글'발로 옮겼다. 기록반의 한 동무인 오 선학은 감격에 넘쳐 시를 읊었다.

양지 바른 동산 중턱에 거연히 살아
다부진 이끼 파릇 파릇 솟고
봄 꽃떨기 품에 안기는 천제봉!

……………

어버님 몇날 끼니를 여이고
다리에 동상을 입었어도
한 오리의 한숨도 몰랐다고
오직 해방과 독립 위해 불랐다고
영원히 전하라 천제봉아!

……………

어버님의 고귀한 정신을 담아
뉘가 오늘의 려명을 올렸는가를
후손 만대에 길이 길이 전하라!
어버님의 의지를 실어
억만년 솟으리라 영원히 살아 있으라!

바로 그렇다! 천제봉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설을 지니고 영원히 솟아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품으셨던 고귀한 리상이 실현된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당과 수령의 부름에 더욱 용감하리라!

저기 아아한 련봉을 넘어 불어 오는 바람에 소나무들이 너흘거린다—마치 우리의 행복된 생활을 노래하듯이………

맑게 개인 하늘로 천제봉을 에돌며 수리개가 날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설을 지닌 이 봉을 지키는 초병과도 같이……

자기의 임무를 끝마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봉 우에 올라 대지를 바라 보고 돌아 섰다.

귀로에 오른 우리들은 몇 번이고 다시 다시 천제봉을 돌아 보았다.

(1956년 4월 20일)

미제는 날강도이다

미군 헌병대가 경기도 파주군에서 대낮에 조선 사람 부락을 습격하고 많은 물건을 빼앗았으며 사람까지 잡아 갔다는 소식이 전해진지도 달이 넘었다.

날이 갈수록 《미제는 물러 가라!》는 조선 인민의 힘찬 목소리는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이에 겁을 집어 먹은 리 승만 도당은 날로 높아 가는 미제의 살인 강도질에 대한 조선 인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제딴에는 좀 가라앉혀 보려고 제법 미군과 《회담》을 가지여 파주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였다.

파주 사건이 있은지 거의 한 달이 지난 5월 10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제 8군 사령관과 리 승만의 세 《장관》 (국방, 내무, 법무》사이에 진행하였다는 소위 《회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는 미제가 저지른 강도질을 마치 옳은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없다. 미군이 머물어 있는 곳을 《미군 금지 구역》 《미군 작전 구역》이라고 하여 조선 사람이 가까이만 가도 미군은 조선 사람을 총으로 쏠 수 있으며 붙잡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리 승만 도당은 미군이 있는 곳에서 조선 사람을 《불량자》라는 구실 밑에 내쫓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군은 조선 사람을 마음대로 쏠 수 있으며 물러가야 할 미군의 주둔 지역에서는 도리여 주인인 조선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생억지인 것이다.

인천에 있는 만국 공원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은 공원 앞 행길로 가는 조선 사람들을 총질하여 죽였다. 공원도 미군의 《작전 지역》이며 《금지 구역》이다.

조선 인민에게는 그런 구역이 필요없다.

조선은 조선 인민의 조선이다. 조선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수천년 전부터 이미 있었으며 대대로 우리 민족이 살아 온 조국이다.

미제는 날강도이다. 강도는 물러 가야 한다. 미제는 물러 가라!

살인 강도 미군은 이렇게 우리 인민을 산 채로 땅 속에 묻어 죽이고 있다.

죽엄 앞에서 애처롭게 우는 어머니들의 가슴은 원쑤에 대한 증오로 불붙는다. 보라! 사람을 쏘아 죽이고 장한듯이 서 있는 이 짐승들을.

판자집을 옮기지 않았다 하여 미국놈들은 이 집 주인을 쏴 죽였다.

☆

이들의 부모는 미군놈의 총에 맞아 죽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이렇게 굶주린 끝에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고아들이 남조선에는 그 얼마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굶주리는 남조선 농민들에게 보내는 구원의 손'길

《어머니! 어머니!》 성희는 학교에서 돌아 오는 길로 성급히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에게 대답할 사이조차 주지 않고 성희는 말을 꺼냈다.

《어머니 쌀 고장에 쌀을 보낸대요, 우리가 쌀 고장에 쌀을—》. 성희는 선생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랑에 넘쳐 자기 어머니에게 시작하는 것이였다.

《쌀 고장에 쌀을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어머니는 쌀 함박을 들고 저녁 지으려 부엌으로 나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딸에게 물었다.

《남조선은 논'벌이 많은 쌀 고장인데 쌀 고장이 아니던 북조선에서 쌀 고장인 남조선에 쌀을 보내 주게 되였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리 빼앗기고 저리 긁히고 하여 쌀이 떨어져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 농민들에게 백미 10만석을 보내 줄데 대한 공화국 내각 결정이 특별 방송으로 전해진 날 저녁의 일이였다.

쌀 고장에 쌀을 보낸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쌀 고장이던 남조선을 미제가 어떻게 굶주린 고장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쌀 고장이 못 되던 공화국 북반부가 어떻게 쌀 고장이던 남반부에까지 쌀을 보낼 수 있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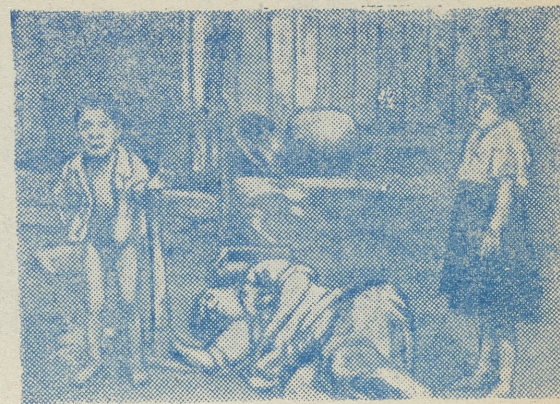
굶주리여 죽어 가는 남조선 농민들을 본체만체 하는 리 승만 도당에 대하여,

쌀이 떨어져 풀 뿌리와 나무 껍질과 칡 뿌리를 끼니로 에우며 그것마저 모자라 굶어 죽는 남조선 농민들에 대한 소식은 날마다 전해졌다. 가슴 아픈 일이다. 한 집 식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넉넉한 편에서 도와 주려는 것마저 놈들은 받아 주려 하지 않으니…

가슴 아프게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성희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오빠도…백미 10만석이 하루 바삐 남조선 농민들에게 가 닿아야 한다고, 남조선 농민들의 고생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 웨친다. 이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목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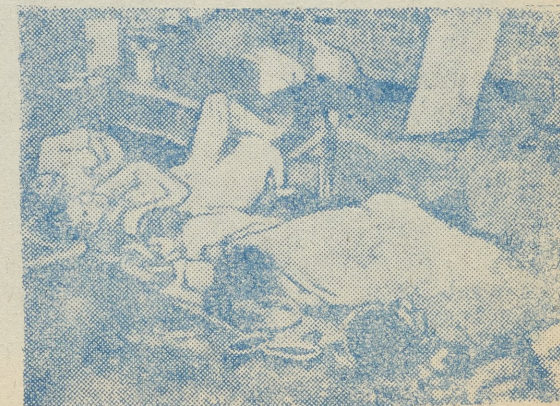
또한 웨친다. 남조선 농민들을 굶주리게 만든 미제는 물러 가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타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들은 굶주리다 못해 굶어 죽는 식구들을 하루라도 더 살려 보려고 피를 팔러 온 사람들이다. 지금 피를 사는 은행 앞에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를 보라! 이 어머니는 풀 뿌리와 나무 껍질을 뜯어 먹다 못해 어린 것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죽는다고 자살한 것이다.

빌어 온 것이 많으면 얼마나 되랴! 아버지는 먹지 못하고 어린 것들이 조금 입에 들칠할 따름, 이것은 남조선 어느 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

이 사진을 보라! 먹을 것을 찾아 고향도 땅도 저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한밤을 잠드는 남조선 농민들의 신세를!

곡예와 어리'광대를 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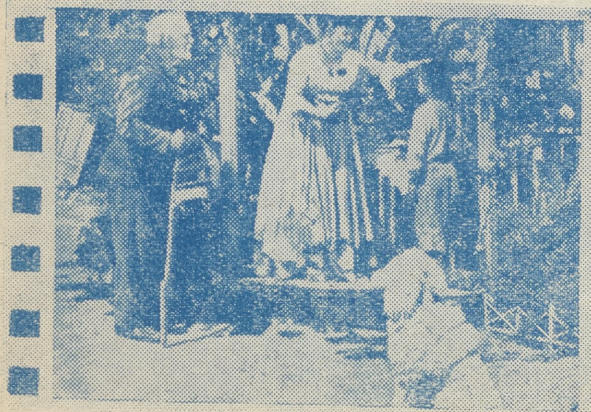
나는 쏘련 아동 영화《흰 삽살개》에 나오는 흰 삽살개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나를 보신 일이 있는지요?

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전 쏘련의 크림이라는 아름다운 반도에서 쎄료자라는 소년과 그의 양 할아버지와 셋이서 함께 살았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살림을 했습니다.

그래 가까운 곳 먼 곳을 가리지 않고 장사'군들이나 귀족들의 별장들을 찾아 다니면서 곡예와 어리'광대를 놀고는 몇푼의 돈을 벌어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처지였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사롭고 편하였습니다.

장사'군 녀자는 돈을 안 주었다

다만 우리가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를 찾아 가나 지주와 상인들의 멸시와 천대였지요.

하루는 장사'군 녀자의 청으로 그 앞에서 우리들은 땀이 나고 힘이 빠지도록 놀음을 놀았습니다. 돈 한푼도 주지 않아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그 장사'군 녀자는 하인을 시켜 우리들을 내 쫓았던 것입니다.

이 날 우리에게는 려비도 떨어지고 빵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원에 들어가 한바탕 놀음을 하고 돈을 얻을가 했는데 밉살스러운 경관이 너절한 사람이라고 못 들어 가게 하는 바람에 쫓겨 나고 말았습니다.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백만장자의 별장에 다달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쎄료자는 이제야 돈 벌 곳을 찾았다고 몹시도 기뻐했어요.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 힘껏 재간을 피우며 놀음 놀이를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는 돈을 후이 주리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집에는 아주 심술 궂고 어리광 피우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글쎄 그 아이는 나를 아주 자기 장난'감으로 만들겠다고 달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며 울지 않겠어요.

이 때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별장 주인 마나님은 할아버지에게 나를 팔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록 개지만 나를 친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는 할아버지와 착한 쎄료자가 아무리 돈을 산데미같이 준다 하여도 나를 팔리야 있겠습니까. 나를 팔지 않겠다고 한 죄로 할아버지와 쎄료자는 돈 한푼도 받지 못하고 별장에서 또 쫓겨 났습니다.

이 때 할아버지는 별장 주인의 아이는 쎄료자와는 비길 수도 없는 버릇 없이 자란 아이라고 꾸짖었어요. 어쩌면 돈 많은 귀족들은 아이를 그렇게 교양할가요.

별장에서 쫓겨난 우리가 바다'가에서 쉬고 있을 때 별장의 문지기가 다시 찾아와 나를 팔라고 졸라댔습니다. 이 때 할아버지는《만일 자네에게 어렸을 때의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를 받구 그를 팔겠나?》하고 어리석은 문지기를 놀려 주었습니다.

문지기가 성이 나서 돌아간 후 피곤해진 쎄료자와 할아버지는 바다'가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 짬을 타서 몹쓸 놈의 문지기가 나에게 순대를 살살 던져 주는 바람에 나는 그만 속아서 그를 따라 갔어요.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나를 잃은 할아버지는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나도 별장 문지기네 방 침대 다리에 목을 매워 있으면서 쎄료자와 할아버지가 그립고, 자유스럽던 지난 날이 그리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쎄료자와 할아버지가 나를 구하려고 경관에게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썩어 빠진 관리들이 할아버지에게 나를 찾아 줄리 없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쎄료자는 나를 구하려고 어두운 밤에 그 높은 담을 넘어 찾아 왔습니다. 나는 너무나 반가와서 막 울었더니 문지기 놈이 그만 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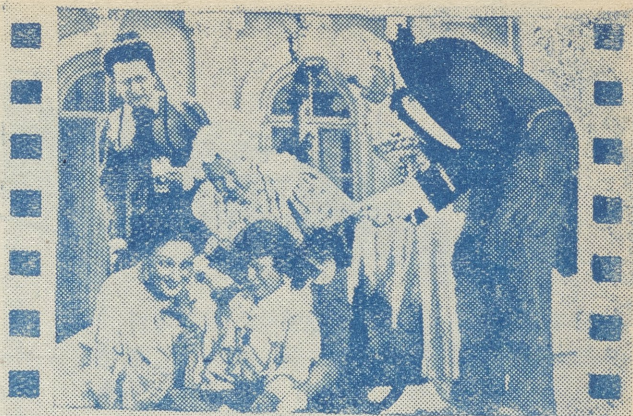
달아 뛰던 쎄료자와 나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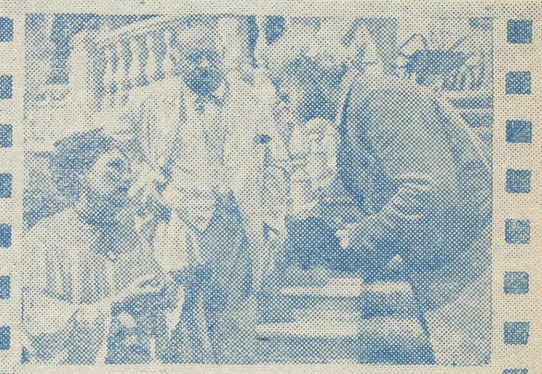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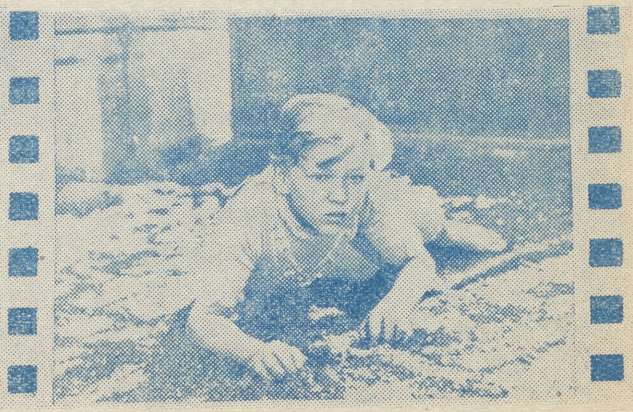
이젠 죽었나부다 하고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앞을 가로 막은 벽에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아니면 우리는 악착스러운 문지기놈에게 잡힐번 했습니다.

이 때 내가 쎄료자를 따라 간 곳은 어떤 로동자들의 숙박소였습니다. 문지기는 여기까지 따라 와서 우리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동자들이 억센 힘으로 우리를 도와 주었습니다. 문지기는 물러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세 식구가 된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나와 쎄료자 그리고 할아버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지주와 귀족들을 없애 버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과 꾸준히 일하며 사는 로동자들만이 우리의 진정한 벗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나를 장난'감으로 달라고 운다

나를 팔리야 있겠습니까

나를 구하려 오는 쎄료자

섐보는 중부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그는 흑인이였습니다. 그는 백인이 경영하는 고무나무 재배원에서 무더움을 무릅쓰고 하루에 12~1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겨우 몇푼 안 되는 적은 임금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가끔 일을 재빨리 하지 않는다고 백인 감독놈한테 무섭게 얻어 맞군 하였습니다.

섐보에게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일곱이였는데 그중 다섯은 딸이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딸을 시집 보내는데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섐보는 장차 딸들을 시집 보내는 데 필요한 돈을 장만해 두려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끔 뜻하지 않은 재난이 생기군 하였습니다. 그것은 백인 감독놈들이 그에게 벌금을 질머지우군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비에 그의 오막살이가 무너진다든가 혹은 아이들 가운데 누가 앓게 된다든가 하여 많은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군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백인 려행가들이 신기한 기계와 많은 짐짝들을 가지고 섐보의 마을로 왔습니다. 그들이 섐보를 보자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 보더니 섐보더러 묻는 것이였습니다.

《너는 튼튼한가? 빨리 달릴 수 있는가?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가》고 …그리고는《우리가 너의 감독한테 이야기해서 너를 우리한테 와서 일하도록 해주겠다. 우리는 너에게 고무나무 재배원에서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섐보는 새로운 백인 주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새 주인한테서 첫날을 보낸 섐보는 일이 끝나자 마자 자기의 기쁜 소식을 안해와 아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달음질쳐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내 일은 아주 헐해요. 아주 가벼운 물건을 조금만 운반하면 되는 걸요》. 그는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말하면서 새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온 새 백인 주인들은 모두 총명한 사람들이예요. 그들은 아주 신기한 기계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 기계로 사진들을 찍는 대요. 나는 그 사진들을 볼 수 있답니다. 그 사진들에는 나무랑, 사람이랑, 개랑, 길, 동물들, 강들…모든 것이 다 나오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있어요! 글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이 걸어 가며, 동물들이 달리며, 개가 뛰여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뻐요. 새 주인은 나에게 고무 재배원 주인이 주던 것보다 열곱이나 더 많은 임금을 준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였습니다. 그 날 섐보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쉬운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짐을 마을로부터 백인 려행가들의 천막까지 운반하면 되는 것이였습니다.

섐보는 아침 일찍 아직 선선할 때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걸어 가면서 가볍게 혼자 노래를 불렀지요. 그는 그 날따라 유달리 기쁘고 행복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백인들의 천막은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길을 따라 얼마 만치 걸어 가다가 밀림으로 조금만 가면 주인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섐보가 막 밀림 속에 들어 섰을 때입니다. 무섭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사자가 뛰여 나왔습니다. 섐보는 짐짝을 집어 던지고 죽을 힘을 다해 뛰였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섐보는 사자에게 잡혀 먹기 전에 천막 있는 데까지 달려 가려고 모든 힘을 다 내여 뛰였습니다. 백인들은 총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섐보는 뛰고 뛰고 또 뛰였습니다. 그는 드디여 천막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섐보는 곧 나무 우에 높이 올라가 있는 두 백인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의 한사람은 그 신기한 기계를 섐보에게로 대고 열심히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 선량한 백인 주인님!》. 섐보는 고함쳤습니다 《나를 살려 주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요…》.

사자는 막 섐보에게로 달려 들게 되였습니다. 섐보는 달리면서 다시 한 번 백인들을 쳐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에 밉살스런 웃음을 지을 뿐이였습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은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섐보의 몸은 사자에게 물어 뜯기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

두달이 지난 후 이 백인들은 구라파로 돌아 왔습니다. 구라파에선 《진짜 사자가 진짜 사람을 잡아 먹는》 신기한 영화 필림을 가지고 왔다고 하여 소문이 높았습니다.

이 《대담한》 려행가들에게 신문 기자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 위험한 장면을 영화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그것도 필림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겠지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었습니까?》.

《하하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였지요》 하고 그들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한 흑인에게 우리의 천막까지 짐을 날라다 달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사자를 우리에 넣어 흑인이 올 길 옆에 숨겨 두었지요. 흑인이 그 길에 왔을 때 사자 우리 문을 열어 놓으니 그만이였지요. 사자는 달려 나왔고 그것으로 모든 일은 다 잘 되였답니다. 자 어떻소! 신기한 필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여 무는 것이였습니다.

번호 부르기와 모래 주머니 빼앗기

1. **유희 조직**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유희장을 그림(1)과 같이 준비한다. 각편 유희자들을 출발선을 향하여 횡대로 서게 한다.

3. **유희 방법**

①지도자는 유희 시작 전에 쌍방 대렬 선두로부터 번호를 부르게 하여 매개 유희자들이 자기의 번호를 기억하게 한다.

②다음 지도자는 큰 소리로 1번 또는 8번 등 임의로 번호를 부른다.

③유희자들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지도자가 불렀을 때 속히 앞으로 달려 나가 먼저 책상(없어도 된다)우에 있는 모래 주머니를 쥐고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 온다.

이때 모래 주머니를 가지지 못한 유희자는 모래 주머니를 가진 유희자가 귀환선을 넘기 전에 그의 웃몸을 손으로 치게 되면 무승부로 된다. 그러나 모래 주머니를 가진 유희자가 귀환선을 넘었을 때에는 한 점을 얻는다.

④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하여 점수를 많이 얻는 편이 이긴다.

4. **지도상 주의**

①모래주머니를 4—5개 준비할것(다른 것으로 해도 좋다)

②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돌아 가는 유희자를 손으로 칠 때 주먹으로 때리거나 혹은 밀치지 말게 할것.

뽈 회전 놀이

1. **유희 조직**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그림 2를 볼 것)

3. **유희 방법**

①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선두 유희자들은 《나무다리》를 리용하여 제2선을 통과한다.

②다음 나무다리는 그 자리에 놓고 달려가 나무에 매달린 뽈을 주먹으로 때려 뽈이 나무를 한 바퀴 이상 돌게 한다.

③뽈을 매여단 끈이 다 감겼을 때에는 주먹으로 뽈을 풀게 한다.

④다음에는 자기 위치로 돌아 가되 제2선에서 《나무다리》를 리용하여 제1선까지 통과한 후 다음 유희자와 손'바닥 치기로 교대한다.

⑤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하여 먼저 끝난 편이 이긴다.

4. **지도상 주의**

①배구 뽈을 리용하는 것이 좋다.

②한 번 때려 뽈이 나무를 몇번 회전하여도 무방하다.

꽃 달기

1. **유희 조직**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①유희장은 그림(3)과 같다.

②각편의 유희자들은 출발 구역을 향하여 횡대로 정렬시킨다.

③유희장 중심 책상 우에 놓여 있는 바구니 안에는 유희자의 수에 따라 여러 가지의 꽃을 넣는다.

3. **유희 방법**

①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매편의 1번 유희자들은 출발 구역에서 평균'대까지 외발로 뛰여 가 평균'대를 건너 다시 제1선까지 외발로 뛰여 간다.

②다음 제1선에서 모둠발 뛰기를 하여 책상 앞까지 간 후 꽃바구니에서 한 개의 꽃을 쥐고 계속 제2선까지 모둠발 뛰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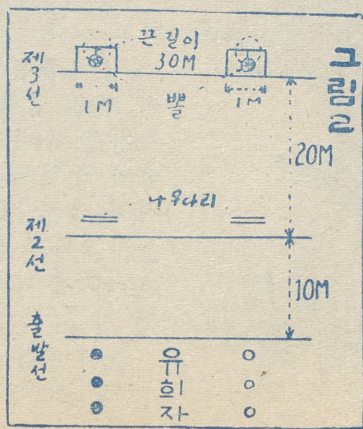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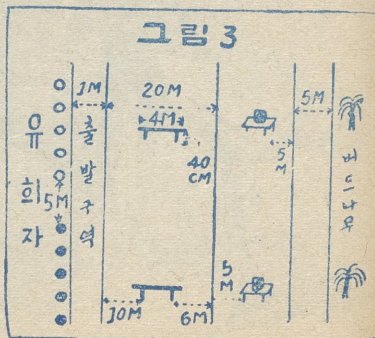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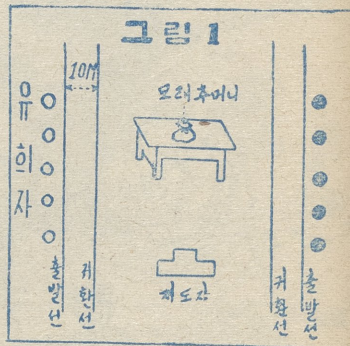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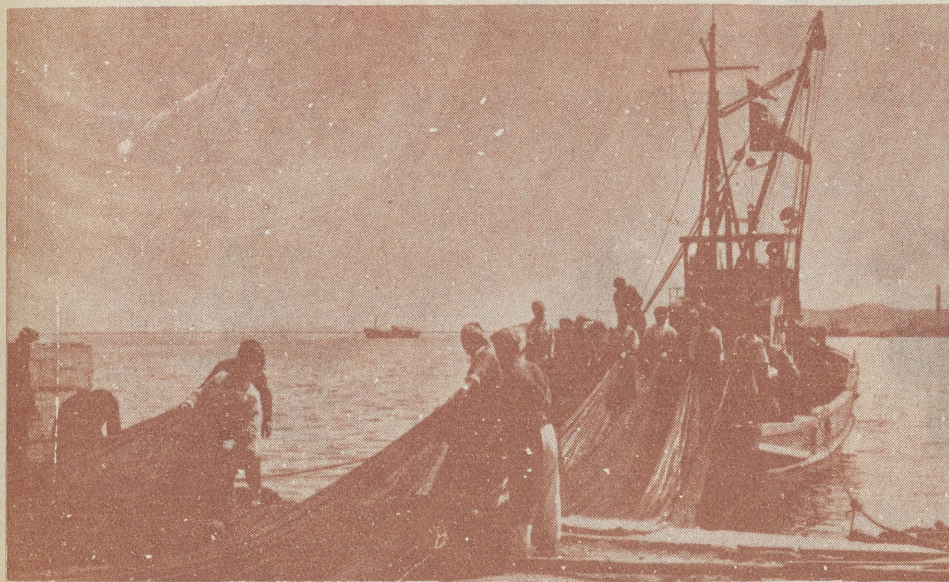
③다음 제2선부터 버드나무까지 달려가 꽃을 나무에 단 후 출발 구역을 향하여 달려와 자기편 2번 유희자와 손바닥 치기로 인계한다.

④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하여 먼저 끝난 편이 이긴다.

4. **지도상 주의**

①꽃에는 끈이 달려 있어야 한다.

③외발 뛰기와 모둠발 뛰기를 정한 지점까지 정확하게 실시하게 할것.

④나무에 꽃을 정확히 달게 할것.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 고기떼를 찾아 넓은 바다로!

→ 넓은 바다의 고기떼도 우리 어로 로동자들에겐 그물 안의 물'고기

← 맛 좋은 물'고기를 사가며 나라에, 어로 로동자들에게 인민들은 감사한다.

편집 위원 김 주 현(주필) 김 칠 성 리 원 우 리 동 무 송 정 우 신 진 균 최 윤 호

1957년 6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6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6 호 (총93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498 값 25 원 80,000부 발행

형제 나라들의 삐오네르 휘장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루마니야

몽 고

불가리야

쏘 련

알바니야

월남 민주 공화국

웽그리야

중 국

체코슬로바키야

파 란

《ㄱ, ㄴ, ㄷ, ㄹ 순》

독자 여러 동무들의 요구에 의하여 여기에 형제 나라들의 삐오네르 휘장을 소개한다.